

古典詩歌의 言語的 理解

破亂國語 朴志成

목차

2014학년도 예비평가AB ... 2쪽 어부사시사(윤선도)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B ... 28쪽 전원사시가(신계영) 산중잡곡(김득연)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AB ... 4쪽 시집살이노래(작자미상) 속미인곡(정철)	2016학년도 수능A ... 30쪽 용비어천가(정인지 외) 강호사시가(맹사성)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AB ... 6쪽 매화사(안민영)	2016학년도 수능B ... 32쪽 어와 동량재탈(정철) 고공답주인가(이원익)
2014학년도 수능AB ... 8쪽 천만리 머나먼 길에(왕방연) 청초에 우거진 골에(임제) 흥망이 유수하니(원천석) 상춘곡(정극인)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34쪽 관저 1수 동동(작자미상) 가시리(작자미상)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A ... 10쪽 국화야 너는 어이(이정보) 이화에 월백하고(이조년) 축규화(최치원)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 36쪽 방옹시여(신희) 벽사창이 어룬어룬커놀(작자미상)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B ... 12쪽 도산십이곡(이황)	2017학년도 수능 ... 38쪽 연행가(홍순학)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A ... 14쪽 정석가(작자미상) 임이 오마 하거늘(작자미상)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 40쪽 오륜가(주세붕)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B ... 16쪽 만분가(조위) 속미인곡(정철)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42쪽 춘향이별가(작자미상)
2015학년도 수능A ... 18쪽 상사곡(박인로)	2018학년도 수능 ... 44쪽 비가(이정환)
2015학년도 수능B ... 20쪽 관동별곡(정철) 유한라산기(최익현)	※ 부록 - 필수 고전시가 전문 관동별곡(정철) ... 46쪽 속미인곡(정철) ... 53쪽 누항사(박인로) ... 55쪽 어부사시사(윤선도) ... 59쪽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A ... 22쪽 동창이 밝았느냐(남구만) 농가월령가(정학유)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B ... 24쪽 어이 못 오던다(작자미상) 청천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작자미상) 정선아리랑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A ... 26쪽 탄궁가(정훈)	

[34~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 예비AB)

㉠우느 거시 벽구기가 프른 거시 버들솨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간 고기 뛰노느다

<춘(春) 4>

년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약립(靑筩笠)은 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무심(無心)은 빅구(白鷗)는 내 좃느가 제 좃느가

<하(夏) 2>

㉢슈국(水國)의 ㄹ을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인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만경딩파(萬頃澄波)*의 슬꺃지 용여(容與)흐자*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秋) 2>

㉣물ㄹ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식식흐고

빅 빅여라 빅 빅여라

머흔* 구름 흔(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ㄹ리온다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딘훤(塵喧)*을
막느또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닷 : 내의. '내'는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 * 만경딩파 :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 * 용여흐자 :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 * 머흔 : 험하고 사나운.
- * 파랑성 : 물결 소리.
- * 염티 : 싫어하지.
- * 딴훤 : 속세의 시끄러움.

3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 ‘벽구기’의 울음소리는 봄의 애상감을, ‘버들숲’의 푸르름은 깊어가는 봄을 보여 준다.
- ② ㉡ : 세속에 ‘무심’한 ‘빅구’를 동경하여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 : 살 오른 ‘고기’는 자연의 풍성함과 화자의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세계를 보여 준다.
- ④ ㉣ : 외로운 ‘술’을 씩씩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⑤ ㉤ : ‘파랑성’과 ‘딘훤’을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준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 6월AB)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분고개로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형님 사촌 형님 시집살이 어떡덥까.

[A]

㉠이애 이애 그 말 마라 시집살이 개집살이.

앞발에는 당추 심고 뒷발에는 고추 심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

등글등글 수박 식기(食器) 밥 담기도 어렵더라.

도리도리 도리소반(小盤) 수저 놓기 더 어렵더라.

㉡오 리(五里) 물을 길어다가 십 리(十里) 방아 짚어
다가,

아홉 솔에 불을 때고 열두 방에 자리 견고,

외나무다리 어렵대야 시아버니같이 어려우랴.

나뭇잎이 푸르대야 시어머니보다 더 푸르랴.

㉢시아버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세 하나 할림새요 시누 하나 뽕족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 하나 미련새요

자식 하난 우는 새요 나 하나만 썩는 썰세.

㉣귀먹어서 삼 년이요 눈 어두워 삼 년이요

말 못해서 삼 년이요 석 삼 년을 살고 나니,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삼단 같던 요내 머리 비사리춤이 다 되었네.

백옥 같던 요내 손길 오리발이 다 되었네.

열새 무명 반물치마 눈물 씻기 다 져었네.

두 폭 붙이 행주치마 콧물 받기 다 져었네.

울었던가 말았던가 베갯머리 소(沼) 이뤘네.

그것도 소이라고 거위 한 쌍 오리 한 쌍

쌍쌍이 때 들어오네.

- 작자 미상, 「시집살이 노래」-

31. 윗글의 시상 전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탄과 반성의 어조를 교차하여 복잡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상황을 부정적으로 규정하고 나서 다양한 예들을 나열하고 있다.
 - ③ 처음과 끝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응시켜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확대해 가면서 심리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해 가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물음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며 사촌 동생의 결혼을 만류하고 있다.
 - ② ㉡ : 과장된 표현을 통해 며느리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 노동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 시집 식구들을 일일이 지목하여 시집 식구들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며느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약을 제시해 며느리의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 : 결혼 전후의 용모 변화를 자연물에 빗대어 시집살이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33.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시는가.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설 들어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임이 사랑함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너로다 여기시매
 나도 입을 믿어 탄 생각 전혀 없어
 아양이며 교태며 어지럽게 하였던지
 반기시는 낮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가.

- 정철, 「속미인곡」-

- ① [A]와 <보기> 모두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제삼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인물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보기>에서는 공간의 변화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보기>에서는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 9월AB)

매영(梅影)이 부드친 창(窓)에 옥인금차(玉人金釵)*
비겨신저

이삼(二三) 백발옹(白髮翁)은 거문고와 노퍽로다
이윽고 잔 드러 권(勸)하랴제 달이 쏘한 오르더라

〈제1수〉

빙자옥질(冰姿玉質)*이여 눈 속에 네로구나
가만이 향기(香氣) 노아 황혼월(黃昏月)을 기약(期
約)하니

아마도 아치고절(雅致高節)*은 너뿐인가 흐노라

〈제3수〉

벗림이 눈을 모라 산창(山窓)에 부딪치니
찬 기운(氣運) 식여 드러 즈는 매화(梅花)를 침노(侵
擄)하니

아무리 얼우려 허인들 봄꽃이야 아슬소냐 〈제6수〉

동각(東閣)에 숨은 쫓치 척촉(躑躅)인가 두견화(杜鵑
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여늘 제 엇지 감히 뛰리

알괘라 백설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밭게 뉘 이시리

〈제8수〉

- 안민영, 「매화사」-

- * 옥인금차 : 미인의 금비녀.
- * 빙자옥질 : 얼음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과 옥같이 아
름다운 성질.
- * 아치고절 : 우아한 풍치와 높은 절개.
- * 백설양춘 : 흰 눈이 날리는 이른 봄.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심화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는 시적 화자를 둘러싼 상황을 제시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제3수는 제1수와 달리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제6수는 대상이 시련을 겪는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제8수는 다른 자연물과 대상의 비교를 통해 공통된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제6수와 제8수는 의문의 형식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안민영의 「매화사」에는 매화를 감상하는 여러 가지 태도가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시흥(詩興)을 불러일으키는 자연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춰 매화를 감상하는 태도가 바탕이 된다. 여기에 당대의 이념과 관련하여 매화에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여 감상하는 태도, 매화에 심미적으로 접근하여 아름다움을 음미하는 태도, 매화의 흥취를 즐기는 풍류적 태도 등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 ① ‘거문고와 노리’는 매화가 불러일으킨 시흥을 즐기기 위한 풍류적 요소이다.
- ② ‘잔 드리 권하랴제’는 고조된 흥취를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 ③ ‘황혼월’은 매화를 심미적으로 감상할 때 매화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 ④ ‘아치고절’은 자연물인 매화에 부여된 심미적이면서도 규범적인 가치이다.
- ⑤ ‘봄뜻’은 매화를 당대 이념에 국한하여 감상해야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시어이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4 수능AB)

(가)

천만리(千萬里) 떠나면 길에 고운 님 여의웁고
내 마음 돌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서 울어 밤길 가는구나

-왕방연-

(나)

청초(靑草) 우거진 골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안(紅顏)*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묻혔느냐
잔(勤)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 그를 슬퍼 하노라

-임제-

(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
초(秋草)로다

오백 년(五百年)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夕陽)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겨워 하노라

-원천석-

*홍안: 젊어서 혈색이 좋은 얼굴.

*만월대 : 고려의 왕궁 터.

*목적 : 목동의 피리.

38.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궁핍한 처지로 인한 좌절감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예기치 않은 이별로 인한 서러운 심정이 나타나 있다.
 - ④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 ⑤ 자신의 이념과 배치되는 현실에서 느끼는 실망감이 표출되어 있다.

39.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천만리(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과 이별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물도 내 안 같아서'는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의 '밤길 가는구나'는 캄캄한 '밤'의 속성을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경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나)의 '홍안(紅顔)을 어디 두고 백골(白骨)만 문혔느냐'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무상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잔(蓋) 잡아 권(勸)할 이 없으니'는 각박한 세태의 제시를 통해 속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40.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 내 생애(生蹈)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風流)에 미칠까 못 미칠까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나만한 이 많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를 것인가
 수간모옥(數間茅蜀)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
 었어라

옛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啦)는 석양(夕陽) 속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陽芳草)는 가랑비 속에 푸르도다
 칼로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야단스럽다

-정극인, 「상춘곡」-

- ① (다)와 <보기>는 동일한 음보율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살리고 있군
- ② (다)는 <보기>와 달리 이질적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 내고 있군.
- ③ (다)에서는 침울한 분위기를, <보기>에서는 들뜬 분위기를 느낄 수 있군
- ④ (다)의 '석양'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는 배경으로, <보기>의 '석양'은 경치를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기능하고 있군.
- ⑤ (다)는 화자가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보기>는 화자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 6월A)

(가)

국화(菊花)야 너는 어이 삼월동풍(三月東風) 다 지내고
 낙목한천(落木寒天)*에 네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傲霜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이정보 -

(나)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라마는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 이조년 -

(다)

쓸쓸하게 향량한 밭 곁에
 寂寞荒田側

[A]

탐스러운 꽃이 여린 가지 누르고 있네.
 繁花壓柔枝

향기는 매우(梅雨)* 지나 희미해지고
 香經梅雨歇

[B]

그림자는 맥풍(麥風)* 맞아 기우뚱하네.
 影帶麥風欹

수레나 말 탄 사람 그 뉘가 보아 줄까?
 車馬誰見賞

[C]

벌이나 나비들만 엇볼 따름이네.
 蜂蝶徒相窺

태어난 곳 비천하니 스스로 부끄럽고
 自慚生地賤

[D]

사람들이 내버려 두니 그저 한스럽네.
 堪恨人棄遺

- 최치원, 「촉규화(蜀葵花)*」-

- * 낙목한천 : 나뭇잎이 떨어지는 때의 추운 하늘.
- * 은한 : 은하수.
- * 자규 : 두견새.
- * 매우 : 매실이 누렇게 익을 무렵의 장맛비.
- * 맥풍 : 보리가 익어 가는 시절에 부는 바람.
- * 촉규화 : 접시꽃.

43.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으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44. (가)~(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네 홀로'에는 다른 꽃들과 대조되는 국화의 속성이 드러나 있다.
 - ② (나)에서는 밝은 달빛을 받는 '이화'에서 환기된 화자의 정서가 '자규'를 통해 심화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동풍'이 불어오는 '삼월'이, (나)에서는 '은한'이 기우는 '삼경'이 화자가 대상과 이별하는 시간적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④ (가)의 '오상고절'에는 굳건한 절개가, (나)의 '다정'에는 애상적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 ⑤ (가)의 '너뿐인가 하노라'에는 대상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나)의 '잠 못 들어 하노라'에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45. <보기>를 참고할 때 (다)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최치원의 「촉규화」는 삶의 현실이나 인식 태도를 사물에 투사하여 그 사물과 자아의 동일성을 이룬 한문 서정시의 하나이다. 최치원의 삶을 고려할 때, 그는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출신상의 한계로 인해 세상에 크게 쓰이지 못한 채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야 할 때가 많았다. 최치원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화자'를 통해 이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촉규화'에 투사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① [A]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상의 한계와 탁월한 능력을 대비하여 말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조만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자신을 크게 써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평범한 이들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의 출신과 처지에 대한 부끄러움과 한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⑤ [A]에서는 '촉규화'의 외양 묘사를 통해, [D]에서는 '촉규화'의 내면 서술을 통해 화자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 6월B)

이런들 엇더히며 저런들 엇더히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히료
 흐믈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고쳐 므슴 흐료

<제1수>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네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제2수>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홀가

<제3수>

유란(幽蘭)이 재곡(在谷)하니 자연(自然)이 듯디 죠해
 백운(白雲)이 재산(在山)하니 자연(自然)이 보디 죠해
 이 중에 피미일인(彼美一人)*을 더욱 닛디 못흐애

<제4수>

산전(山前)에 유대(有臺)하고 대하(臺下)에 유수(有
 水)] 로다

떼 많은 갈매기는 오명가명 흐거든
 엇더타 교교백구(皎皎白駒)*는 멀리 므슴 두는고

<제5수>

춘풍(春風)에 화만산(花滿山)하고 추야(秋夜)에 월만
 대(月滿臺)라

사시가흥(四時佳興)이 사롭과 흥가지라
 흐믈며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이
 야 어찌 끝이 있으리

<제6수>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 순풍 : 순박한 풍속.
- * 피미일인 : 저 아름다운 한 사람. 곧 임금을 가리킴.
- * 교교백구 : 현자(賢者)가 타는 흰 망아지. 여기서는 현자를 가리킴.
- * 어약연비 운영천광 : 대자연의 우주적 조화와 오묘한 이치를 가리킴.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드러내고 삶의 지향을 제시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환기한다.
- ② 제2수에 나타난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을 제3수에서는 사회로 확대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 ③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룸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화한다.
- ④ 제4수와 제5수에서는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장면들을 배치하여 공간의 입체감을 부각하며 시상을 심화한다.
- ⑤ 제6수에서는 화자의 인식을 점층적으로 드러내어 주제 의식을 집약한다.

44.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하’와 ‘풍월’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재이다.
- ② ‘순풍’과 어진 ‘인성’은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알려주는 표지이다.
- ③ ‘유란’과 ‘백운’은 화자가 심미적으로 완상하는 대상이다.
- ④ ‘갈매기’와 ‘교교백구’는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상징적 존재이다.
- ⑤ ‘화만산’과 ‘월만대’는 화자의 충만감을 자아내는 정경의 표상이다.

45.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그곳(부친에게 물려받은 별장)에는 씨 뿌려 식량을 마련할 만한 밭이 있고, 누에를 쳐서 옷을 마련할 만한 뽕나무가 있고, 먹을 물이 충분한 샘이 있고, 딸감을 마련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내 뜻에 흡족하기 때문에 그 집을 ‘사가(四可)’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다.

녹봉이 많고 벼슬이 높아 위세를 부리는 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지만, 나같이 곤궁한 사람은 백에 하나도 가능한 것이 없었는데 뜻밖에도 네 가지나 마음에 드는 것을 차지하였으니 너무 분에 넘치는 것은 아닐까? 기름진 음식을 먹는 것도 나물국에서부터 시작하고, 천리를 가는 것도 문 앞에서 시작하니, 모든 일은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만일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세상일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라. 그리고 밭을 갈고 배[腹]를 두드리며 성군(聖君)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 그 노래를 음악에 맞춰 부르며 세상을 산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게 있으랴.

- 이규보, 「사가재기(四可齋記)」 -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선택한 자연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낙관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한 개인으로서의 소망을 이루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윗글은 <보기>와 달리 삶의 물질적 여건이 마련된 후에야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윗글은 속세에 있으면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을, <보기>는 자연에 있으면서 속세를 그리워하는 인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 9월A)

(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파로이 살아간들

㉤천 년을 외파로이 살아간들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제6연>

- 작자 미상, 「정석가」-

(나)

입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
 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임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곱비임비* 임비곱
 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렁통탕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
 깃 보니 작년 칠월 사흔날 꺾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살뜰히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옷길
 뻥하였어라.

- 작자 미상 -

- * 거머희뜩 : 검은빛과 흰빛이 뒤섞인 모양.
- * 곱비임비 : 거듭거듭 앞뒤로 계속하여.
- * 천방지방 : 몹시 급하게 허둥대는 모양.
- * 삼대 : 삼[麻]의 줄기.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에 비해 시간과 공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② (나)는 (가)에 비해 설의적 표현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 ③ (가)와 (나) 모두 대조와 연쇄를 통해 생동감을 드러낸다.
 - ④ (가)와 (나) 모두 격정적 어조를 통해 고요한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⑤ (가)는 상황의 가정에서, (나)는 행동의 묘사에서 과장이 드러난다.

44. ㉠~㉣ 중 <보기>의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고려 시대에는 민간의 노래 가운데 풍속을 교화하는데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노래를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시켰다. 궁중 연회에서 사랑 노래가 많이 불린 것은 사랑 노래가 잔치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서도 남녀 간의 사랑을 ㉠군신 간의 충의로 그 의미를 확장하여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널리 불린 「정석가」가 궁중 연회의 노래로 정착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45. <보기>를 참고할 때,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사설시조에서의 해학성은 독자가 화자와 거리를 두되 관용의 시선을 보내는 데서 발생한다. 화자의 착각, 실수, 급한 행동과 그로 인한 낭패가 웃음을 유발하지만 독자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자의 행동 이면에 있는 절실함, 진지함, 진솔함, 애뜻함, 간절함을 느끼면서 화자와 공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 ① 화자가 ‘저녁밥’을 짓다가 ‘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혼잣말 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솔함을 공감한다.
- ② 화자가 ‘임’이라 여긴 ‘거머희뜩’한 것을 향해 ‘워렁통탕’ 건너가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절실함을 공감한다.
- ③ 화자가 집 안 마당에서 서성대며 ‘건넌 산’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애뜻함을 공감한다.
- ④ 화자가 처음 보는 ‘삼대’를 ‘임’으로 착각하여 ‘임’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간절함을 수용한다.
- ⑤ 화자가 ‘임’이 오지 못하게 된 이유를 ‘밤’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서 독자는 웃음 지으면서도 그 속에 담긴 진지함을 수용한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 9월B)

천상(天上) 백옥경(白玉京) 십이루(十二樓) 어디매오
 오색운(五色雲) 깊은 곳에 자청전(紫淸殿)이 가렸으니
 천문(天門) ㉠구만 리(九萬里)를 꿈이라도 갈동 말동

「차라리 식어지어 억만(億萬) 번 변화(變化)하여
 [A]

「남산(南山) 늦은 봄에 두견(杜鵑)의 낮이 되어
 이화(梨花) 가지 위에 밤낮을 못 올거든
 삼청동리(三淸洞裡)*에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바람에 홀리 날아 자미궁(紫微宮)에 날아올라
 옥황(玉皇) 향안 전(香案前)의 지척(咫尺)에 나아 앉아

[B] 흉중(胸中)에 쌓인 말씀 쓸커시 사뢰리라
 어와 이 내 몸이 천지간(天地間)에 늦게 나니
 황하수(黃河水) 맑다마는
 ㉣초객(楚客)*의 후신(後身)인가 상심(傷心)도 끝이
 없고

가 태부(賈太傅)*의 낮이런가 한숨은 무슨 일고
 형강(荊江)은 고향(故鄉)이라 십 년(十年)을 유락(流
 落)하니

㉤백구(白鷗)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루는 듯 괴는 듯 남의 없는 입을 만나
 금화성(金華省) 백옥당(白玉堂)의 꿈이조차 향기롭다
 오색(五色)실 이음 짧아 임의 옷을 못 하여도
 바다 같은 임의 은(恩)을 추호(秋毫)나 갚으리라

[C] 백옥(白玉)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장안(長安) 어젯밤에 무서리 섞여 치니

[D] 일모 수죽(日暮脩竹)*에 취수(翠袖)도 냉박(冷薄)할사*

[E] 유란(幽蘭)을 꺾어 쥐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약수(弱水) 가려진 데 구름 길이 험하구나

- 조위, 「만분가(萬憤歌)」-

* 삼청동리 : 신선이 사는 동네 안.
 * 초객 : 초나라의 시인 굴원.
 * 가 태부 : 한나라의 태부 가의.
 * 일모 수죽 : 해 질 녘 긴 대나무.
 * 취수도 냉박할사 : 푸른 옷소매도 차디차구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반복하여 상대방을 희화화하고 있다.
 - ③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 ④ 풍자적 기법을 활용하여 교훈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경물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44. ㉠~㉤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와 대상 사이의 거리
 - ② ㉡ :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
 - ③ ㉢ :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매개
 - ④ ㉣ :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
 - ⑤ ㉤ : 화자가 교감을 나누는 존재

45.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 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만분가」는 유배를 간 작가가 천상의 옥황에게 호소하는 형식으로 연군(戀君)의 마음을 표현한 유배 가사의 효시이며 이후 여러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 문학의 대표작인 「속미인곡」 역시 탄핵을 받아 조정에서 물러나게 된 작가가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만분가」의 형식을 계승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보기 2>—

[가] 모침(茅簷)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늘 위하여 밝았는고
오르며 내리며 해매며 바장이니
저근덧 역진(力盡)하여 풋잠이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입을 보니

[나] 옥(玉) 같은 얼굴이 반(半)이 넘게 늙으셨네

[다] 마음에 먹은 말쑤 슬카장 삶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쑤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하여 목이조차 메었으니
방정맞은 계성(鷄聲)에 잠은 어찌 깨었는고
어와 허사(虛事)로다 이 임이 어디 간고

[라] 곁에 일어나 앉아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날 좇을 뿐이로다

[마] 차라리 식어지어 낙월(落月)이나 되어 있어
임 계신 창(窓) 안에 번듯이 비추리라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① [A]와 [마]에는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 ② [B]와 [다]에는 마음에 담아 둔 말을 실컷 전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 ③ [C]와 [나]에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
- ④ [D]와 [가]에는 임금과 떨어져 있는 고독한 시공간에서 느끼는 화자의 쓸쓸함이 담겨 있다.
- ⑤ [E]와 [라]에는 먼 곳에 있는 임금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이 담겨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 수능A)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겐 서러운가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
 양대(陽臺)에 구름비는 내린 지 몇 해인가
 반쪽 거울 녹이 슬어 티끌 속에 묻혀 있다
 청조(靑鳥)도 아니 오고 백안(白鴈)도 그쳤으니
 소식도 못 듣거늘 임의 모습 보겠는가
 ㉠화조월석(花朝月夕)에 울며 그리워할 뿐이로다
 그리워해도 못 보기에 그리워하지도 말리라 여겨
 나도 장부(丈夫)로서 모진 마음 지어 내어
 이제나 잇자 한들 눈에 절로 밝히거늘 설워 아니 그
 리워할쏘냐

㉡그리워해도 못 보니 하루가 삼 년 같도다
 원수(怨讎)가 원수 아니라 못 잇는 게 원수로다
 사택망처(徙宅忘妻)는 그 어떤 사람이고
 그 있는 곳 알고자 진초(秦楚)*엔들 아니 가랴
 무심하고 쉽게 잇기 배워나 보고 싶구나
 어리석은 분수에 무슨 재주가 있을까마는
 임 향한 총명*이야 사광(師曠)인들 미칠쏘냐
 총명도 병이 되어 날이 갈수록 짙어 가니
 ㉢먹던 밥 덜 먹히고 자던 잠 덜 자인다
 수척한 얼굴이 시름 겨워 검어 가니
 취한 듯 흐릿한 듯 청심원 소합환 먹어도 효험 없다
 고향(膏肓)에 든 병을 편작(扁鵲)인들 고칠쏘냐
 목숨이 중한지라 못 죽고 살고 있노라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이리되자 맺었던가
 비익조(比翼鳥) 부부 되어 연리지(連理枝) 수풀 아래
 나무 엮어 집을 짓고 나무 열매 먹을망정
 이승 동안은 하루도 이별 세상 안 보기를 원했건만
 동과 서에 따로 살며 그리워하다 다 늙었다
 예로부터 이른 말이 견우직녀를
 천상(天上)의 인간 중에 불쌍하다 하건마는
 그래도 저희는 한 해에 한 번을 해마다 보건마는
 ㉤애달프구나 우리는 몇 은하가 가려서 이토록 못
 보는고

-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 진초 : 진나라, 초나라 지역. 매우 먼 곳을 말함.
- * 총명 : 듣거나 본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음.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입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풍자의 기법으로, 떠나간 입에 대한 서운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통해,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담담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태어를 나열하여, 입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반어적 표현으로, 입에 대한 애정이 식어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꽃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 즉 경치가 좋은 시절을 뜻하는 ‘화조월석’이라는 시어를 통해 입과 함께 좋은 때를 누리지 못하는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은 짧은 동안을 나타내는 ‘하루’와 긴 시간을 나타내는 ‘삼 년’이라는 시어의 대비를 통해 입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인 ‘밥’과 ‘잠’이라는 시어를 통해 입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는 ‘처음’과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이리되자’라는 시어를 통해 입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은 입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존재를 나타내는 ‘은하’라는 시어를 통해 입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45. <보기>는 윗글에서 사용한 고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 청조 : 신녀 서왕모를 위해 음식물을 가져오고 소식을 전해 주는 신화 속의 푸른 새.
- ㉡ 사택망치 : 노나라 애공과 공자의 대화에 나오는 말로, 이사할 때 아내를 껌박 잇고 두고 가는 것.
- ㉢ 사광 : 춘추 시대 진(晉)나라 약사로, 청각 능력이 우수하여 음률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에 뛰어났음.
- ㉣ 편작 : 전국 시대의 명의로, 환자의 오장을 투시하는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함.
- ㉤ 비익조 : 암수가 각각 눈 하나와 날개 하나만 있어서 짝을 지어야만 날 수 있다는 전설 속의 새.

- ① ㉠을 활용한 것은, ‘청조’가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화자와 입 사이에 소식이 끊겼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② ㉡을 활용한 것은, ‘사택망치’한 이가 차라리 부러울 정도로 화자가 입을 잇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③ ㉢을 활용한 것은, 화자가 입에 대한 기억을 펼쳐 낼 수 없음을 ‘사광’의 기억력에 견주어 말하려는 것이군.
- ④ ㉣을 활용한 것은, 입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이 ‘편작’마져 고칠 수 없는 병처럼 매우 깊음을 말하려는 것이군.
- ⑤ ㉤을 활용한 것은, 화자와 입이 이별하더라도 결국에는 ‘비익조’처럼 재회할 운명임을 말하려는 것이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5 수능B)

(가)

비로봉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기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이 어늬야 놀듯던고

㉠노국(魯國) 조본 줄도 우러는 모르거든

넙거나 넙은 천하 엇서하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흐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흐거니 느려가미 고이홀가

원통골 ㄴ는 길로 사자봉을 츠자가니

그 알퓌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여세라

천 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너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다 살와 내여스라

㉣마하연(摩訶衍) 묘길상(妙吉祥) 안문(雁門)재 너머 디어

[A] 외나모 써근 드리 불정대(佛頂臺) 올라흐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半空)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ㄴ티 플터이서 뵈ㄴ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李謫仙)이 이제 이서 고터 의논흐게 되면

여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흐려니

산중을 미양 보랴 동해로 가자스라

㉤남여(籃輿) 완보(緩步)하야 산영루(山映樓)의 올라흐니

영롱벽계(玲瓏碧溪)와 수성제조(數聲啼鳥)는 이별을

원(怨)흐는 듯

- 정철, 「관동별곡」-

(나)

얼마 후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 서쪽에서 동쪽으로 산등성이를 휘감았다. 나는 괴이하게 여겼지만, 이곳에 까지 와서 한라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면 이는 바로 산을 쌓는 데 아홉 길의 흙을 쌓고도 한 삼태기의 흙을 엮지 못해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곧장 수백 보를 전진해 북쪽 가의 오목한 곳에 당도하여 굽어보니, 상봉이 여기에 이르러

갑자기 가운데가 터져 구덩이를 이루었는데 이것이 바로 백록담이었다. 주위가 1 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 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 홍수나 가뭄에도 물이 줄거나 불지 않는데, 얇은 곳은 무릎에, 깊은 곳은 허리에 찻으며 맑고 깨끗하여 조금의 먼지 기운도 없으니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사방을 둘러싼 봉우리들도 높고 낮음이 모두 균등하니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석벽에 매달려 백록담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털썩 주저앉아 잠깐 휴식을 취했다. 일행은 모두 지쳐서 남은 힘이 없었지만 서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최고봉이었으므로 조심스럽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

[B] 최고봉은 평평하게 퍼지고 넓어서 그리 아찔해 보이지는 않았으나, 위로는 별자리에 닿을 듯하고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扶桑)*을 돌아보고 우로는 서쪽 바다를 접했으며,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리고 웅기종기 널려 있는 섬들이 큰 것은 구름 조각 같고 작은 것은 달걀 같아 놀랍고 괴이한 것들이 천태만상이었다.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 또 소동파에게 당시에 이 산을 먼저 보게 하였다면 그의 이른바,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어서 “낭랑하게 읊조리며 축융봉을 내려온다.”라는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 하인들이 이미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놓았다.

- 최익현, 「유한라산기」-

* 부상 : 해가 뜨는 동쪽 바다.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여행에 대한 경륜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 : 정치적 포부를 펼칠 만큼 높은 지위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 자신에게 험난한 역경이 다가오고 있음을 자연 현상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 : 거쳐 온 곳을 열거하면서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를 최소화하여 여정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

3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등정을 계속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② 객관적인 사실에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여 백록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혀 등정 과정이 힘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최고봉에서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등정 과정에 비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시구를 낭송하는 모습을 통해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33. <보기>는 (가) 작품의 다른 부분이다. <보기>와 [A],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천근(天根)을 못내 보와 망양정(望洋亭)의 울은말이
 바다 밧근 하늘이니 하늘 밧근 므서시고
 꺾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관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육합(六合)의 느리는 듯
 오월(五月) 장천(長天)의 백설(白雪)은 므스 일고

- ① [A]와 <보기>는 모두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② [A]는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하고, <보기>는 천문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
- ③ [B]와 <보기>는 모두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보기>는 자연물의 움직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고 있다.

34. <보기>를 참조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비들의 산수 유람에는 와유(臥遊)와 원유(遠遊)가 있다. 와유는 일상에서 산수화나 산수 유람의 글 등을 감상하며 국내외의 여러 경치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즐기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원유는 이름난 경치를 직접 찾아가 실제의 자연을 즐기는 흔치 않은 체험으로, 유교에서 강조하는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보고 감상한 부분은 다른 이들이 같은 장소를 와유할 때 활용될 수 있겠군.
- ② (가)의 화자는 와유를 통해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하며 와유의 가치를 확인하고 있군.
- ③ (나)의 글쓴이는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군.
- ④ (나)의 글쓴이가 정상에 올라 '성현'의 호연지기를 상상하는 데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의 글쓴이는 '소동파'의 시를 통해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 6월A)

(가)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칠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 남구만 -

(나)

㉠도롱이에 호미 걸고 뿔 굽은 검은 소 몰고

고동풀 뜯기면서 개울물 가 내려갈 제

어디서 폼 진* 벗님 함께 가자 하는고

<제2수>

둘러내자* 둘러내자 우거진 고랑 둘러내자

㉠바랭이 여뀌 풀을 고랑마다 둘러내자

쉬 짙은 긴 사래는 마주 잡아 둘러내자

<제3수>

땀은 듣는 대로 듣고 별은 쫓 대로 쫓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리 불 제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고

<제4수>

- 위백규, 「농가(農歌)」-

(다)

사월이라 초여름 되니 입하 소만 절기로다

㉠비 온 끝에 별이 나니 날씨도 화창하다

떡갈잎 퍼질 때에 뼈꼭새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패어 나니 피꼬리 노래한다

농사도 한창이요 누에치기 한창이라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

㉠적막한 사립문을 녹음(綠陰) 속에 달았도다

목화를 많이 가꾸소 길쌈의 근본이라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부록*을 적게 하소

갈 꺾어 거름할 제 풀 베어 섞어 하소

물 댄 논을 써레질하고 이른모를 내어 보세

-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 폼 진 : 폼앗이를 한.

* 둘러내자 : 휘감아서 걷어 내자.

* 부록 : 곡식이나 채소를 심은 사이사이에 다른 농작물을 심는 일.

3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다)에서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다.
- ② (나)의 <제2수>에는 생명의 이미지가, (다)에는 소멸의 이미지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의 <제3수>와 (다)에서는 화자의 심경 변화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나)의 <제4수>와 (다)에는 반어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는 모두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3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밝아 오는 ‘동창’과 ‘노고지리’의 지저귀음을 통해 ‘아이’가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 : ‘호미’를 챙기고 ‘소’를 직접 몰고 가는 모습을 통해 농사일을 하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 ③ ㉢ : ‘고랑’의 풀을 ‘마주 잡아’ 걷어 내는 것을 통해 농사일을 함께 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 : ‘비 온 끝에 별’이 나는 ‘화창’한 날씨를 통해 좋은 때에 일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사립문’이 ‘녹음 속’에 닫혀 있는 모습을 통해 농번기에 집이 비어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33. (나)와 (다)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는 (다)와 달리,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되어 있군.
- ② (나)에는 (다)와 달리,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그려져 있군.
- ③ (다)에는 (나)와 달리, 먹고 입는 것과 관련한 농사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군.
- ④ (나)와 (다)의 화자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주목하고 있군.
- ⑤ (나)와 (다)의 배경은 모두 농부들의 일상적인 삶을 보여 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 6월B)

(가)

어이 못 오턴다 무슨 일로 못 오턴다

너 오는 길 위에 무쇠로 성(城)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란 집을 짓고 집 안에란 뒤주* 놓고 뒤주
안에 궤를 놓고 궤 안에 너를 결박하여 놓고 쌍빅목*
외결새에 용거북 즈물쇠로 수기수기 줌갓터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턴다

흔 들이 설흔 놀이여니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랴

- 작자 미상 -

(나)

청천(靑天)에 떠서 울고 가는 외기러기 날지 말고
너 말 들어

한양성 내에 잠간 들러 부디 너 말 잊지 말고 웨웨
터* 불러 이르기를 월황혼 계위 갈 제 적막 공궤(空
關)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져 님 그려 츠마 못 살네라
하고 부디 한 말을 전하여 주렴

우리도 님 보러 밧비 ㄱ읍는 길이오매 전홀동 말동
하여라

- 작자 미상 -

(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 주게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너 주게

싸리골 울동백이 다 떨어진다

민동산 고비 고사리 다 늙었지마는

[A] 이 집에 정든 임 그대는 늙지 마세요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B] 정 들이고 가시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성님 성님 사촌 성님 시집살이가 어떻던가

[C] 삼단 같은 요 내 머리 비사리춤* 다 되었네

오늘 갔다 내일 오는 건 해 달이지만

[D] 한 번 가신 우리 임은 그 언제 오나

당신이 날만침만* 생각을 한다면

[E] 가시밭길 천 리라도 신발 벗고 오리라

- 「정선 아리랑」 중에서 -

* 뒤주 : 쌀 따위의 곡식을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 쌍빅목 :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 웨웨터 : 외쳐.

* 비사리춤 : 벗겨 놓은 싸리 껍질의 묶음.

* 날만침만 : 나만큼만.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임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화자를 찾아오기에는 하루라는 시간이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화자가 처한 상황의 책임을 화자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에서는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에서는 화자가 제삼자와 더불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며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에서는 임이 거주하는 공간의 특징을 묘사하여 화자의 고독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32.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임이 자연의 섭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원하는 말로 임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고 있어.
- ② [B] : 임이 떠나가는 것을 자연현상에 빗대어 임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
- ③ [C] : 묻고 답하는 방식을 빌려 여성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고 있어.
- ④ [D] : 임이 떠나간 것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이므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 ⑤ [E] : 기대만큼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 주지 않는 임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어.

33.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는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등에서 구절들이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 ② (나)의 ‘한양성 내에 잠깐 들러’, ‘적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저’에서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을 알 수 있다.
- ③ (가)의 ‘집’, ‘뒤주’, ‘괘’ 등과 (다)의 ‘고비’, ‘고사리’ 등을 보면 생활에 밀접한 사물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 ④ (가)의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와 (다)의 ‘성님 성님 사촌 성님’을 보면 단어와 구절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의 ‘전혀여 주렴’과 (다)의 ‘건너 주게’를 보면 작품 내에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 9월A)

[A]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련마는
 어찌 된 인생이 이다지도 괴로운고
 삼십 일에 아홉 끼니 얻거나 못 얻거나
 십 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안표(顔瓢)*가 자주 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헌(原憲)*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

[가] 봄날이 따뜻하여 뼈꾸기가 보채거늘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기장 피 조 팔은 서너 되 부쳤거늘
 춥고 주린 식구 이리하여 어이 살리

㉠이봐 아이들아 아무쪼록 힘을 써라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져 종을 주니
 눈 위에 바늘 젓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올벼는 한 발 뜯고 조 팔은 다 묵히니
짜리피 바랭이*는 나기도 싫지 않던가
 환곡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 낼꼬
 이리저리 생각해도 견딜 수가 전혀 없다
 장초(莨楚)의 무지(無知)*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겨울을 덮다 한들 몸을 어이 가릴꼬
 베틀 북도 쓸 데 없어 빈 벽에 남겨 두고

㉣술 시루도 버려두니 붉은빛이 다 되었다
 세시 삭망 명일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하며

㉤원근 친척 손님들은 어이하러 접대할꼬
 이 얼굴 지녀 있어 어려운 일 하고 많다
 이 원수 가난귀신 어이하러 여의려뇨

[나]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 불러 전송하여
 길한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라 하니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를 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희로애락을 너와 함께하여

[나] 죽거나 살거나 여월 줄이 없었거늘

어디 가 뉘 말 듣고 가라 하여 이르느뇨
 우는 듯 꾸짖는 듯 온가지로 험박거늘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도 다 옳도다
 무정한 세상은 다 나를 버리거늘
 네 혼자 신의 있어 나를 아니 버리거든
 위협으로 회피하며 잔피로 여일려나

[B] 하늘 만든 이내 가난 설마한들 어이하리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정훈, 「탄궁가(嘆窮歌)」-

* 안표 : 안회(顔回)의 표주박. 안회는 한 소쿠리 밥과 한 표주박 물로 누항에 살면서도 즐거워하였음.
 * 원헌 : 공자의 제자로 궁핍함 속에서도 청빈하게 살았음.
 * 짜리피, 바랭이 : 잡초의 일종.
 * 장초의 무지 : 『시경』에 나오는 말. 부역으로 고통 받던 백성들이, 무지하여 근심 없는 장초 나무를 부러워하였음.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설득적 어조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③ [가]는 과거 상황에 대한 그리움이, [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 있다.
- ④ [가]는 관념적인 문제를, [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 ⑤ [가]는 현실 타개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탄식이, [나]는 의인화된 대상과의 대화가 나타나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 :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③ ㉢ : 겨울이 따뜻하다고 해도 몸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으로, 겨울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가지도 부족함을 보여 준다.
- ④ ㉣ : 술 시루를 방치해 두어 녹이 슬었다는 것으로,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을 형편이 아님을 보여 준다.
- ⑤ ㉤ : 친척들과 손님들을 접대할 방도가 없다는 것으로, 도리를 다할 수 없을 것에 대한 염려가 반영되어 있다.

45. [A]와 [B]에 주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일정 고루 하련마는’에 나타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화자의 신념이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에 이르러서 강화되어 있군.
- ② [A]의 ‘어찌 된 인생이’에 나타난 화자의 비관적 인생관이 ‘짜리피 바랭이’에 이르러서는 낙관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 있군.
- ③ 화자의 가난한 삶이 [A]의 ‘이다지도 괴로운고’에서는 탄식의 대상이지만 [B]의 ‘서러워해 무엇하리’에 이르러서는 체념적 수용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있군.
-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 나타난 화자의 열등감이 [B]의 ‘설마한들 어이하리’에 이르러서는 우월감으로 극복되어 있군.
- ⑤ ‘이 얼굴 지녀 있어’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거나 [B]의 ‘빈천도 내 분수니’에 이르러서는 그 자신감이 약화되어 있군.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6 9월B)

㉠양파(陽坡)*의 풀이 기니 봄빛치 느껴 있다
 소원(小園) 도화(桃花)는 밤비에 다 피거다
 아히야 쇼 도히 머겨 논밭 갈게 햏야라

<제2수>

㉡잔화(殘花) 다 딴 후에 녹음이 기퍼 간다
 백일(白日) 고촌(孤村)에 낫툼의 소리로다
 ㉢아히야 계면도 불러라 긴 조롭 썩오자

<제3수>

동리(東籬)에 국화 피니 중양(重陽)이 거에로다
 자채(自菜)*로 비즌 술이 햏마 아니 니것느냐
 ㉣아히야 자해(紫蟹)* 황계(黃鷄)로 안주 장만햏야라

<제6수>

북풍이 노피 부니 압 피해 눈이 딴다
 ㉤모침(茅簷)* 촌 빗치 석양이 거에로다
 아히야 두죽(豆粥) 니것느냐 먹고 자랴 햏로라

<제7수>

이바 아히돌아 새히 온다 즐겨 마라
 [A] 현스흔 세월이 소년(少年)* 아사 가느니라
 우리도 새히 즐겨 햏다가 이 백발이 되얏노라

<제9수>

- 신계영, 「전원사시가(田園四時歌)」-

- * 양파: 별이 잘 드는 언덕.
- * 자채: 올벼. 칠 이르게 익은 벼.
- * 자해: 꽃게.
- * 모침: 초가지붕의 처마.
- * 소년: 젊은 나이.

31.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화자가 지향했던 초월적인 삶의 세계가 회고된다.
 - ② ㉡: 꽃이 떨어진 것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제시된다.
 - ③ ㉢: 시름을 일시적으로나마 잊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표출된다.
 - ④ ㉣: 미각을 돋우는 소재들을 통해 화자의 흥취가 드러난다.
 - ⑤ ㉣: 세속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가 집약되어 나타난다.

32.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늘그니 늘그니를 만나니 반가고 즐겁고야
 반가고 즐거오니 늘근 줄을 모를로다
 진실노 늘근 줄 모르거니 밋일 만나 즐기리라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제49수-

- ① [A]와 <보기>는 모두 젊음과 늙음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주제를 표출하고 있다.
- ② [A]와 <보기>는 모두 자신의 현재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보기>는 모두 세월의 흐름이 빠르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현재의 자신과 다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 대한 훈계가, <보기>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상대를 만난 기쁨이 드러난다.
- ⑤ [A]에서는 과거에 대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태도가, <보기>에서는 상대를 통해 현재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태도가 드러난다.

33. <보기>를 참조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시가(四時歌)는 사계절의 추이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는 시가를 일컫는다. 사시가에서는 계절에 관한 시상이 드러나는 연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일한 어휘나 유사한 표현을 연마다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연을 묘사하기 위한 시어 및 구절을 먼저 제시한 후 화자의 반응이나 정취를 덧붙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품에 따라서는 일상의 풍경을 도입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른 세상살이의 모습을 조명하거나, 어김없이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무상한 인간사를 대비하기도 한다.

- ① 사계절의 추이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사시의 요건을 갖추고 있군.
- ② ‘아희야’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연 사이의 유기성을 부여하고 있군.
- ③ 계절이 다루어진 연은 자연의 모습이 먼저 묘사되고 화자의 반응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되군.
- ④ 봄에 소를 먹여 논밭을 가는 것과 가을에 울벼로 빛은 술을 찾는 것은 일상의 풍경을 그려 낸 사례이겠군.
- ⑤ 각 연에서는 일정하게 순환하는 자연의 이치와, 그러한 이치를 삶에 구현하지 못하는 인간을 대비하고 있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 수능A)

(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뭉새 꽃 좋고 열매
 많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칠새 내가 일어 바다
 에 가나니

〈제2장〉

천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녘에 누인개국
 (累仁開國)하시어 복년(卜年)*이 가없으시니

성신(聖神)*이 이으셔도 경천근민(敬天勤民)하셔야
 더욱 굳으시리이다

임금하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 가 있어 조상만
 믿겠습니까*

〈제125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나)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가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閑暇)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1수〉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얽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2수〉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3수〉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하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복년 : 하늘이 주신 왕조의 운수.

* 성신 : 훌륭한 임금의 자손.

* 낙수에 ~ 믿겠습니까 : 중국 하나라의 태강왕이 정
 사를 돌보지 않고 사냥을 갔다가 폐위당한 일을 가
 리킴.

4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장>과 <제125장>은 모두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② <제125장>과 달리, <제2장>은 한자어를 배제하고 순우리말의 어감을 살리고 있다.
- ③ <제2장>과 달리, <제125장>은 전언의 수신자를 명시하고 있다.
- ④ <제125장>에서는 행에 따라 종결 어미를 달리하고 있다.
- ⑤ <제2장>에서는 유사한 자연의 이치가 내포된 두 사례를 나란히 배열하고 있다.

41. <보기>는 (나)의 글쓴이가 창작을 위해 세운 계획을 가상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제1수>~<제4수>에 공통적으로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ㄱ. 각 수 초장의 전반부에는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며 시상의 단서를 드러내야겠군.
- ㄴ. 각 수 초장의 후반부에서는 내면적 감흥을 구체적 사물을 통해 표현해야겠군.
- ㄷ. 각 수 중장에서는 주변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여 내가 즐기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제시해야겠군.
- ㄹ. 각 수 종장의 마지막 어절에는 동일한 시어를 배치하여 전체적 통일성을 확보해야겠군.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4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용비어천가」는 새 왕조에 대한 송축, 왕에 대한 권계 등 정치적 목적으로 왕명에 따라 신하들이 창작하여 궁중 의례에서 연행된 작품이고, 「강호사시가」는 정계를 떠난 선비가 강호에서 누리는 개인적 삶을 표현한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사대부들에 의해 창작되었다. 사대부들은 수신(修身)을 임무로 하는 사(士)와 관직 수행을 임무로 하는 대부(大夫), 즉 선비와 신하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 인해 사대부들이 향유한 시가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뿌리 깊은 나무’와 ‘샘이 깊은 물’은 기반이 굳건하고 기원이 유구하다는 뜻을 내세워 왕조를 송축하는 표현이겠군.
- ② (가)에서 ‘경천근민’의 덕목을 부각하여 왕에 대해 권계한 것은 ‘대부’로서의 정치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군.
- ③ (나)에서 ‘한가’하게 ‘소일’하는 개인적 삶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표현한 데서 정치적 성격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강파’, ‘바람’ 등의 자연물과 ‘소정’, ‘그물’ 등의 인공물의 대립은 ‘사’와 ‘대부’라는 정체성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한강 북녘’은 새 왕조의 터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나)의 ‘강호’는 개인적, 정치적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겠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 수능B)

(가)

어와 동량재(棟梁材)*를 더리 혀야 어이 홀고
 헐쓰더 기운 집의 의논(議論)도 하도 할샤
 못 목수 고자(庫子) 자* 들고 허둥대다 말려느다

- 정철 -

(나)

바깥 별감* 많이 있어 ㉠바깥 마를 달화주*도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쏘이로다
 비 식여 서근 집을 누라서 곳쳐 이며
 옷 버서 문허진 담 누라서 곳쳐 쓸고
 ㉡불한당 구멍 도적 아니 멀니 단이거든
 화살 춘 수하상직(誰何上直)* 누라서 힘써 홀고
 큰나큰 기운 집의 마누라* 혼자 안자
 명령을 뉘 드르며 논의를 놀라 홀고
 낮 시름 밤 근심 혼자 맛다 계시거니
 옥 곳튼 얼굴리 편혹실 적 몇 날이리
 이 집 이리 되기 뉘 타시라 홀셔이고
 험 업는 종의 일은 못도 아니 흐려니와
 도로혀 헤여흐니 마누라 타시로다
 ㉢뉘 주인 외다 흐기 종의 죄 만컨마는
 그러타 세상 보려 민망흐야 사뢰나이다
 ㉣새끼 쏘기 마르시고 내 말슴 드로쇼셔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쇼셔
 진실노 이리 흐시면 가도(家道) 절노 날니이다

- 이원익, 「고공답주인가(雇工答主人歌)」-

- * 동량재 : 건축물의 마룻대와 들보로 쓸 만한 재목.
- * 고자 자 : 창고지기가 쓰는 작은 자.
- * 별감 : 사내 하인끼리 서로 존대하여 부르던 말.
- * 달화주 : 주인집 밖에서 생활하는 종들에게서 주인에게 내야 할 대가를 받아오는 일을 맡아 보던 사람.
- * 수하상직 : “누구냐!” 하고 외치는 상직군.
- * 마누라 : 상전, 마님 등을 이르는 말.

40. (가),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달리 (나)에서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리듬감이 나타나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가)에서는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안타까움의 정서가 강조되고 있다.
 - ③ (나)와 달리 (가)에서는 직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색채어를 통해 대상의 면모가 강조되고 있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4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에 의해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
 - ② ㉡: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
 - ③ ㉢: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화자가 설득하고 있는 청자
 - ④ ㉣: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
 - ⑤ ㉤: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일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유학 이념에서는 국가를 가족의 확장된 형태로 본다.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하듯, 국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군신(君臣)이 본분을 다해야 한다. 조선 시대 시가에서는 이러한 이념을 담아 국가를 집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 ①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은 모두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를 뜻하겠군.
- ② (가)의 '기운 집'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인 국가를, (나)의 '기운 집'은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를 나타내겠군.
- ③ (가)의 '의논'과 (나)의 '논의'는 모두 국가 대사를 위해 임금과 신하가 합의하여 도출해 낸 올바른 대책을 뜻하겠군.
- ④ (가)의 '뭇 목수'는 조정의 일에 무관심한 신하들을, (나)의 '헐 업는 종'은 조정의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신하를 나타내겠군.
- ⑤ (가)의 '고자 자'와 (나)의 '문혀진 담'은 모두 외세의 침입에 협조하며 국익을 저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뜻하겠군.

[25~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 6월)

(가)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宴饗)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고려속요의 기원과 형성에는 민간의 노래가 관여되었다.

민간의 노래가 궁중 잔치의 노래로 사용된 연원은 중국의 오래된 시집인 『시경(詩經)』의 ‘풍(風)’에서 찾을 수 있다.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다.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하였다.

남녀 간의 사랑 노래를 포함한 민간의 노래가 궁중 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을 공고히 하고 풍속을 교화(教化)하는 수단이 필요했는데, 예법(禮法)과 음악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문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A] 關關雎鳩(관관저구) 꾸욱꾸욱 우는 물수리 한 쌍
 在河之洲(재하지주) 하수(河水)의 모래톱에 있다.
 窈窕淑女(요조숙녀) 요조숙녀는
 君子好逑(군자호구) 군자의 좋은 짝이로다.

위의 시는 ‘풍’에 실린 「관저(關雎)」 편 첫째 작품으로 작품의 짜임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이룰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이 상응하면서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문왕(文王)과 후비(后妃)*의 덕을 읊은 것, 부부간의 화락(和樂)과 공경(恭敬)을 읊은 것, 풍속 교화의 시초 등 이 노래에 대한 평(評)이 이를 짐작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노래는 궁중에서 불렸을 때 국가적 차원의 의미까지 담게 될 여지를 갖게 된다.

한편,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공통점이 있지만 고려 속요는 ‘풍’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려 속요는 민간의 사랑 노래가 궁중악으로 정제되어 편입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기도 했다. 즉 작품의 특정 부분에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한 작품이 구성될 때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였다. 그리고 궁중 연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부분이 덧붙여지기도 했다. 예컨대, 전체적으로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보이는 작품에 ㉡송축의 내용을 담거나 ㉢이별의 상황과 동떨어진 시어를 붙이기도 한다. 「동동」과 「가시리」는 이러한 변화를 비교적 잘 보여 주고 있다.

(나)

덕(德)이란 곰비에 받잡고 복(福)이란 림비에 받잡고
 덕(德)이여 복(福)이라 호닐 나스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서사>

정월(正月)스 나릿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흐논티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흐올로 널서

아으 동동(動動)다리 <정월령>

이월(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등(燈)스불 다호라
 만인(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이월령>

삼월(三月) 나며 개(開)흐 아으 만춘(滿春) 들릿고지여
 님티 브를 즈슬 디너 나샷다

아으 동동(動動)다리 <삼월령>

- 작자 미상, 「동동」-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티(大平盛代)

날리는 엇디 살라 흐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티(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흐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티(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덕(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문왕과 후비 : 고대의 이상적인 성인 군주와 그의 부인인 태사.

25.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 속요는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사용되었다.
- ② 『시경』의 ‘풍’은 조선의 궁중악에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 ③ 『시경』의 ‘풍’에 실린 노래에는 민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
- ④ 『시경』의 ‘풍’과 고려 속요는 모두 상층 노래가 하층 문화에 영향을 준 결과물이다.
- ⑤ 궁중악에서는 남녀의 사랑이 군신 간의 관계로 확장, 전환되어서 해석될 수 있었다.

26. ㉠~㉣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아으 동동다리’는 ㉠의 예로 볼 수 없다.
- ②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③ (나)의 <서사>에서 ‘아으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 ④ (다)의 ‘위 증즐가 대평성덕’는 ㉡의 예로 볼 수 있으나, ㉢의 예로는 볼 수 없다.
-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성덕’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의 예로 볼 수 있다.

27. (가)를 참고하여 [A],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는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나)의 <정월령>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나 있군.
- ② [A]의 ‘물수리 한 쌍’과 (나)의 ‘만춘 들 윗곳’은 생활 속에서 민중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A]에서는 화락의 상황을,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A]에서는 제1행과 제2행이, (다)에서는 제1연과 제2연이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군.
- ⑤ [A]에서는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나)에서는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덕’을, (다)에서는 ‘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학년도 9월)

(가)

산촌(山村)에 눈이 오니 돌길이 못쳐세라
 시비(柴扉)를 여지 마라 날 츠즈리 님 이스리
 밤둥만 일편명월(一片明月)이 그 벗인가 흐노라

<1수>

(나)

셋그래 기나 즈르나 기둥이 기우나 트나
 수간모옥(數間茅屋)*을 죽은 줄 옷지 마라
 어즈버 만산 나월(滿山蘿月)*이 다 너 거신가 흐노라

<8수>

(다)

한식(寒食) 비 온 밤에 봄빛치 다 퍼졌다
 무정(無情)흔 화류(花柳)도 새를 아라 픽엿거든
 엇터타 우리의 님은 가고 아니 오느고

<17수>

(라)

어지밤 비 온 후(後)에 석류(石榴)꽃지 다 픽엿다
 부용 당반(芙蓉塘畔)*에 수정렴(水晶簾)을 거더 두고
 늘 향한 김흔 시름을 못내 푸러 흐노라

<18수>

(마)

창(窓)밭기 위석버석 님이신가 이리 보니
 혜란 혜경(蕙蘭蹊徑)*에 낙엽(落葉)은 무스일고
 어즈버 유한흔 간장(肝腸)이 다 끈칠까 흐노라

<19수>

- 신희, 「방옹시여(放翁詩餘)」-

* 수간모옥 : 방이 몇 칸 되지 않는 작은 초가.
 * 만산 나월 : 산에 가득 자란 덩굴 풀에 비친 달.
 * 부용 당반 :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가.
 * 혜란 혜경 :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16.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화자의 삶의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라)에서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심리적 변화를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마)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17. <보기>의 ㉠, ㉡를 고려하여 (가)~(라)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방옹시여」는 선조(宣祖)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 신희이 은거 상황을 배경으로 창작한 시조 작품을 모아 놓은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30수는 몇 개의 작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궁심을 표현한 작품군,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군 등이 있다.

- ① (가)의 '눈'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은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는 단서이다.
- ② (나)의 '수간모옥'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되어 있는 대상이다.
- ③ (나)의 '만산 나월'은 ㉡와 연관된 시어로,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게 하는 소재이다.
- ④ (다)의 '봄빛'은 ㉡와 연관된 시어로,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촉발하는 계기이다.
- ⑤ (라)의 '부용 당반'은 ㉡와 연관된 시어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다.

18. (마)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벽사창(碧紗窓)이 어룬어룬커늘 님만 너겨 풀썩 니러나
 쪽작 나서 보니
 님은 아시오 명월(明月)이 만정(滿庭)흐티 벽오동(碧梧桐)
 저즌 님희 봉황(鳳凰)이 느려안자 긴 부리를 휘여다가
 두 노래에 너허 두고 슬금슬적 깃 다듬는 그림자
 |로다
 모쳐로 밤일식만정 행여 낮이런들 늬 우일 번혀여라
 - 작자 미상 -

- ①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감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군.
- ② (마)의 초장과 <보기>의 초장에서는 모두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군.
- ③ (마)의 중장과 <보기>의 중장에서는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 일으킨 대상이 확인되고 있군.
- ④ (마)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묘사가, <보기>의 중장에서는 착각을 야기한 대상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고 있군.
- ⑤ (마)의 종장에서는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보기>의 종장에서는 타인의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군.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7 수능)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이편저편 화류교의(樞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차종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했니 앉았으니
 [A]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중략)

─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B]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곱밤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삼배주를 마시는 듯 연파(宴罷)하고 일어서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 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사람마다 짐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흥정 외상 셈하러 주주리는 지지권다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천일방(天一方) 우리 서울 창망하다 갈 길이어
 풍진이 분운(紛紜)한데 집 소식이 둔절하니
 사오 삭(朔) 타국 객이 귀심(歸心)이 살 같구나
 송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
 서풍이 샅샅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 홍순학, 「연행가」-

- * 구고두 :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 * 상마연 : 일을 마치고 떠나는 외국 사신들을 위하여 베풀던 잔치.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다.
- ② 학문과 관련된 사물을 나열하여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객지에서의 낯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회환할 때의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제시하여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

4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45. [A], [B]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B]에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군.
- ②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 받고, [B]에서 ‘삼 사신’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을 하사받고 있군.
- ③ [A]에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을 나타내는군.
- ④ [A]에서 ‘글귀 질로 오락가락’은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곱밤’ 등은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는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 6월)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아바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곤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랸다

이 덕(德)을 갓흐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랸다

<제2수>

종과 주인과를 닐라셔 삼기신고

별과 개미가 이 뜻을 몬져 아니

한 마암애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음사이다

<제3수>

지아비 발 갈라 간 데 밭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형님 자신 젓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를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주세붕, 「오륜가」-

(나)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윈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긍긍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귀가 쫑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 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 이곡, 「차마설」-

4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예찬하고 있다.
- ② 상반된 세계관이 대구의 형식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③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시선을 담고 있다.
- ④ 삶의 태도에 대한 경계와 권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이상향에 대한 의식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진술하고 있다.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관념적 덕목을 열거하여 각각이 지닌 모순점을 밝히고 있다.
- ② (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옹호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는 개인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 ④ (나)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형상화하여 욕망의 실현을 돕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경이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이 지닌 덕성을 부각하여 인간적 삶에 대한 긍지를 드러내고 있다.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다. 우선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 등을 통해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 ① <제3수>에서는 ‘별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 ② <제4수>에서는 화자로 내세운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젓’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
- ⑤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5.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노둔하고 야윈 말’을 빌리는 경우 ‘진전공공’하다가 위협에 처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 ②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그것을 소유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나’는 ‘맹자’의 ‘이 말’에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018 9월)

(가)

만금 같은 너를 만나 백년해로하잖더니, 금일 이별 어이 하리! 너를 두고 어이 가잔 말이냐? 나는 아마도 못 살겠다! 내 마음에는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 말고, 이 고을 풍헌(風憲)만 하신다면 이런 이별 없을 것을, 생눈 나올 일을 당하니, 이를 어이한 단 말이고? 귀신이 장난치고 조물주가 시기하니, 누구를 탓하겠나마는 속절없이 춘향을 어찌할 수 없네!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

[A]

춘향이 대답하되, 우리 당초에 광한루에서 만날 적에 내가 먼저 도련님더러 살자 하였소? 도련님이 먼저 나에게 하신 말씀은 다 잊어 계시오? 이런 일이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 우리가 그때 맺은 금석 같은 약속 오늘날 다 허사로세! 이리해서 분명 못 데려가겠소? 진정 못 데려가겠소? 떠보려고 이리하시오? 끝내 아니 데려가시려 하오? 정 아니 데려가실 터이면 날 죽이고 가오!

그렇지 않으면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 ㉠명문(明文) 써 준 것이 있으니, ㉡소지(所志) 지어 가지고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하겠소. 원님이 만일 당신의 귀공자 편을 들어 폐소시키시면, 그 소지를 덧붙이고 다시 글을 지어 전주 감영에 올라가서 순사또께 소장(訴狀)을 올리겠소. 도련님은 양반이기에 ㉢편지 한 장만 부치면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폐소시키거든, 그 글을 덧붙여 한양 안에 들어가서, 형조와 한성부와 비변사까지 올리면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서 지게 하겠지요. 그러면 그 ㉣판결문을 모두 덧붙여 푼푼 말아 품에 품고 팔만장안 역만가호마다 걸식하며 다니다가, 돈 한 푼씩 벌여 얻어서 동이전에 들어가 바리뚜껑 하나 사고, 지전으로 들어가 장지 한 장 사서 거기에다 언문으로 ㉤상언(上言)을 쓸 때,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 이월이나 팔월이나, 동교(東郊)로나 서교(西郊)로나 임금님이 능에 거동하실 때, 문밖으로 내달아 백성의 무리 속에 섞여 있다가, 용대기(龍大旗)가 지나가고, 협연군(挾輦軍)의 자개창이 들어서며, 붉은 양산이 따라오며, 임금님이 가마나 말 위에 당당히 지나가실 제, 왈각 뛰어 내달아서 바리뚜껑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땡땡하고 세 번만 쳐서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격쟁(擊箏)을 하오리다! 애고애고 설운지고!

그것도 안 되거든, 애쓰느라 마르고 초조해하다 죽은 후에 낫이라도 삼수갑산 험한 곳을 날아다니는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밤이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체하고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 이별 말이 웬 말이오?

이별이란 두 글자 만든 사람은 나와 백 년 원수로다! 진시황이 분서(焚書)할 때 이별 두 글자를 잊었던

가? 그때 불살랐다면 이별이 있을소냐? 박랑사(博浪沙)*에서 쓰고 남은 철퇴를 천하 장사 항우에게 주어 힘껏 돌려메어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 벼락을 담당하는 상좌가 되어 내려와 이별 두 글자를 깨치고 싶네!

- 작자 미상, 「춘향전」-

* 박랑사 : 중국 지명. 장량이 진시황을 암살하려 했던 곳.

(나)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이별이로다 춘향이 도련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 도련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나를 두고 가겠으면 홍로화(紅爐火) 모진 불에 다 사르겠으면 사르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잡을 데 없으시면 ㉠삼단같이 좋은 머리를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

[B]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용천검(龍泉劍) 드는 칼로다 요 내 목을 베겠으면 베고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다 날 두고 가겠으면 ㉡영천수(潁川水) 맑은 물에다 던지겠으면 던지고나 가시오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

이리 한참 힐난하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방자 놔 분부하여 나귀 안장 고이 지으니 도련님이 나귀 등에 올라앉으실 때 춘향이 기가 막혀 미칠 듯이 날뛰다가 우르르 달려들어 나귀 꼬리를 부여잡으니 ㉢나귀 네 발로 동동 굴러 춘향 가슴을 찰 때 안 나던 생각이 절로 나 그때에 이별 별(別) 자 내인 사람 나와 한백 년 대원수로다

깨치리로다 깨치리로다 박랑사 중 쓰고 남은 철퇴로 천하장사 항우 주어 이별 두 자를 깨치리로다 할 수 없이 도련님이 떠나실 때 향단이 준비했던 주안을 갖추어 놓고 푯고추 겨리김치 문어 전복을 곁들여 놓고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별 낭군이 잡수시오 언젠는 살자 하고 화촉동방(華燭洞房) 긴긴 밤에 청실홍실로 인연을 맺고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삼(曾參)* 되자더니 ㉣산수 증삼은 간 곳이 없고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 잘 가시오 잘 있거라 산첩첩(山疊疊) 수중중(水重重)한데 부디 편안히 잘 가

시오

나도 ㉔명년 양춘가절*이 돌아오면 또다시 상봉할까나

-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 증삼 : 공자의 제자. 고지식하여 약속을 반드시 지킴.

* 양춘가절 : 따뜻하고 좋은 봄철.

33.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련님'은 이별의 상황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춘향'은 '도련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을 우려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 ③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춘향'은 고사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⑤ '춘향'은 천상의 존재에게 억울함을 전하는 상황을 설정하여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34.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 '도련님'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춘향'이 쓴 글이다.
- ② ㉒: '도련님'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③ ㉓: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는 '도련님'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④ ㉔: '도련님'에게는 약속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 ⑤ ㉔: '춘향'이 '순사또'의 힘을 빌려 '임금'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35. ㉕~㉗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㉕는 인물이 지닌 자부심을 환기하여 좌절감을 완화하는 소재이다.
- ② ㉖는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어 현재의 고통과 대비하기 위한 소재이다.
- ③ ㉗는 부정적인 상황을 희화화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다.
- ④ ㉕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사정을 부각하여 비애감을 심화하는 표현이다.
- ⑤ ㉖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는 표현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 작품에서 '춘향'은 다양한 면모를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었다. '춘향'은 원치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적 면모를 보이기도, 목표를 이루려 단호하게 행동하는 적극적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신세를 한탄하며 절규하는 걱정적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문제를 숙고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치밀한 면모를 표출하기도 한다. 한편 '춘향'은 당대 민중의 시각을 대변하는 면모를 지니기도 한다.

- ① (가)에서 양반들이 한통속이어서 '도련님'을 두둔할 것이라고 언급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입장을 취하는 '춘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구걸하고 다니면서라도 자신의 상황을 알리겠다는 모습을 통해, 뜻한 바를 성취하려는 '춘향'의 적극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나)에서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을 말하며 '도련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모습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나)에서 '도련님'에게 주안을 올리며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서글픈 현실을 감내하려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 (나)에서 '이별'이라는 두 글자를 철퇴로 깨뜨리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북받친 감정을 토로하면서 탄식하는 '춘향'의 걱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A],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조선 후기에 책을 대역환구^{〈보기〉}값을 받는 세책업자는 「춘향전」을 (가)와 같은 세책본 소설로, 유흥적 노래를 지은 잡가의 담당층은 「춘향전」의 대목을 (나)와 같은 잡가로 제작했다. 세책업자는 과장되고 재치 있는 표현을 활용하여 흥미를 높이거나 특정 부분의 분량을 늘려 이윤을 얻으려 했다. 잡가의 담당층은 노래의 내용을 단시간에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집약해 설명하고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는 가사를 반복해 청중의 공감을 끌어냈다.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을 엮어 노래를 구성할 때에는 작품 속 화자의 역할이 바뀌기도 하였다.

- ① [A]에서 '생는 나을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쓴 것은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되겠군.
- ② [A]에서 '도련님'에게 거듭하여 묻는 형식을 사용한 것은 분량을 늘리려는 의도와 관련되겠군.
- ③ [B]에서 첫 행에 작품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청중을 작품의 내용에 빠르게 끌어들이려는 전략과 관련되겠군.
- ④ [B]에서 '못 가시리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인물의 감정을 강조한 것은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되겠군.
- ⑤ [B]에서 화자가 해설자에서 인물로 역할을 바꾸는 것은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 주는 단서이겠군.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 수능)

(가)

반(半)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꿈아
만 리(萬里) 요양(遼陽)*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鶴駕)* 선객(仙客)을 친히 뵈 듯하여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異域) 춘궁(春宮)을 뉘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술령 귀혼(歸魂)을 못내 슬허호노라
〈제4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武臣)도 하 만하라
신고(辛苦)호 화친(和親)을 누를 두고 호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趙吏吏)* 이미 죽으니 참승(參乘)호*
이 업세라
〈제6수〉

구중(九重) 달 밝근 밤의 성려(聖慮)* 일정 만흐려니
이역 풍상(風霜)에 학가인들 이즐쏘나
이 밖에 억만창생(億萬蒼生)을 못내 분별호시도다
〈제7수〉

구렁에 났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 업스니 기 아니 조홀쏘나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시름겨워 호노라
〈제8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갖하야 갈 길 몰라 호노라
〈제9수〉

- 이정환, 「비가(悲歌)」-

- * 요양 : 청나라의 심양.
- * 학가 :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 * 박제상 : 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 * 조구리 : 조씨 성을 가진 마부. 충신을 가리킴.
- * 참승호 : 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 * 성려 : 임금의 염려.
- * 검불 :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나)

이전 서울 계동 홍술햇골에서 살 때 일어났다. 휘문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리할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돌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밭 속에 그 고해(枯骸)만 영성하게 남아 있었다.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을 때, 소공(素空)이 건란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이 돌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가를 먹고 중독되어 곱란(霍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며,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별었다. 방렬·청상(淸爽)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잎이 뺏뺏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A]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紫煙)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잖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蝸室蝸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 이병기, 「풍란」-

* 간죽하수문주인 : ‘대숲을 봤으면 그만이지 그 주인이 누구인지 물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뜻.

* 두실 와옥 : 몹시 작고 누추한 집.

3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34.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학가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 그를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그와 같은 충신을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지어 언급함으로써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35.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② ㉠과 ㉡은 모두 세월의 흐름을 나타내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④ ㉠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로, ㉡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임병양란 이후의 사대부들 사이에서는 긴 사연을 담을 수 있는 연시조 양식을 활용해 전란 후 현실의 문제를 다루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병자호란 직후 지어진 「비가」에도,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마음, 임금을 향한 충정, 전란 후 상황에 대한 견해 등 여러 내용이 복합되어 있다. 각 수의 시어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그 같은 내용들이 올바르게 파악될 수 있다.

- ①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와 <제4수>의 ‘뉘라서 모셔 오리’라는 진술에는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
- ② <제4수>의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조구리’와 같은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
- ③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 ‘신고훈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
- ⑤ <제7수>의 ‘달 밝근 밤’과 <제8수>의 ‘봄비’에는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

37. (나)의 맥락을 고려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썩은 향나무 꺾질’과 대조적인 의미를 지니는 ‘옥 같은 뿌리’는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③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A]는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관동별곡 關東別曲 정철

강호(江湖)에 병(病)¹⁾이 깊퍼 죽림(竹林)의 누엇더니
 관동(關東) 팔백리(八百里)에 방면(方面)을 맞디시니
 어와 성은(聖恩)이야 가디록 망극(罔極)하다
 연추문(延秋門)²⁾ 드리드라 경회(慶會) 남문(南門) 바라보며
 하직(下直)고 물너나니 옥절(玉節)³⁾이 알피 섰다
 평구역(平丘驛) 물을 그라 흑슈(黑水)로 도라드니
 첨강(蟾江)은 어디메오 티악(雉岳)이 여기로다
 쇼양강(昭陽江) 느린 물이 어드러로 든단 말고
 고신거국(孤臣去國)⁴⁾에 백발(白髮)도 하도 할샤
 동쥬(東州) 밤 계오 새와 북관당(北寬亭)의 올라흐니
 삼각산(三角山) 데일봉(第一峯)이 허마면 뵈리로다
 궁왕(弓王) 대궐(大闕) 터희 오작(烏鵲)이 지지괴니
 천고(千古) 흥망(興亡)을 아난다 몰으논다
 회양(滄陽) 네 일흠이 마초아 그틀시고
 급당유(汲長孺)⁵⁾ 풍채(風采)를 고태 아니 볼 계이고
 영등(營中)이 무스(無事)하고 시절(時節)이 삼월(三月)인 제
 화천(花川) 시내길히 풍악(風樂)⁶⁾으로 버더 잇다
 행장(行裝)을 다 썰티고 석경(石逕)의 막대 디퍼
 백천동(白千洞)⁷⁾ 겨티 두고 만폭동(萬瀑洞)⁸⁾ 드러가니
 은(銀) 그튼 무지개 옥(玉) 그튼 용의 초리
 첫들며 썸는 소리 십리의 주자시니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1) 자연을 사랑하여 자연을 떠나기 싫어하는 마음. 천석고황(泉石膏肓), 연하고질(煙霞痼疾)

2) 궁궐 서쪽에 있던 문으로 영추문(迎秋門)

3) 관찰사의 상징물. 신표(信標)

4) 나라를 떠남. 여기서는 도읍인 한양을 떠남

5) 중국 사람으로 한나라 때 회양태수를 하였음

6) 금강산의 띤 이름

7) 장안사 동북쪽에 있는 옥경대와 명경대로 들어가는 골짜기 이름

8) 표훈사 위로부터 마하연 밑까지의 계곡 이름

금강디(金剛臺)⁹⁾ 민 우층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의 첫짐을 씨뒸던디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쓰니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¹⁰⁾을 반겨서 넘노는 듯
 쇼향노(小香爐) 대향노(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正陽寺)¹¹⁾ 진혈디(眞歇臺) 고터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¹²⁾ 진면목(眞面目)이 여기야 다 뵈느다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놀거든 쫓디 마나, 셋거든 쫓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жат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明)을 박츠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눅홀시고 망고디(望高臺)¹³⁾ 외로올샤 혈망봉(穴望峯)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느다
 어와 어여이고 너 ㄱ투니 쫓 잇는가
 기심디(開心臺)¹⁴⁾ 고터 올라 등향성(衆香城)¹⁵⁾ 바라보며
 만 이천 봉(萬二千峰)을 녀력(歷力)히 혀여흐니
 봉(峯)마다 밋쳐 잇고 곳마다 서린 기운
 몹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몹디 마나
 더 기운 흐터 내야 인걸(人傑)을 몬돌고자
 형용(形容)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텃디(天地) 삼기실 제 즈연(自然)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有情)홀샤

9) 표훈사 북쪽에 있는 석벽 이름

10) 송나라 때 서호가에서 학과 벗하며 지낸 은사(隱士) 임포(林逋)

11) 표훈사 북쪽에 있는 절 이름

12) 중국 강서성에 있는 산 이름

13) 금강산 동쪽 봉우리

14) 정양사 위에 있는 고개

15) 영랑봉 동남쪽에 있는 봉우리

비로봉(毗盧峯)¹⁶⁾ 상상두(上上頭)의 올라 보니 그 뉘신고
 동산(東山) 태산(泰山)¹⁷⁾이 어늬야 늑뎡던고
 노국(魯國) 조븐 줄도 우리논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텨하(天下) 엇찌하야 적닷 말고
 어와 더 디위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오르디 못하거니 느려가미 고이흘가
 원통(圓通)골¹⁸⁾ 7는 길로 스즈봉(獅子峯)¹⁹⁾을 초자가니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化龍)쇠 되어세라
 천 년(千年)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듀야(晝夜)의 흘녀 내여 창히(滄海)에 니어시니
 풍운(風雲)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는다
 음애(陰崖)에 이온²⁰⁾ 플을 다 살와 내여스라
 마하연(摩訶衍)²¹⁾ 묘길상(妙吉祥)²²⁾ 안문(雁門)재²³⁾ 너머 디여
 외나모 써근 드리 불딩디(佛頂臺)²⁴⁾ 올라하니
 천심절벽(千尋絕壁)을 반공(半空)애 세여 두고
 은하슈(銀河水)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7티 플터이서 뵈7티 거러시니
 도경(圖經)²⁵⁾ 열두 구비 내 보매논 여러히라
 니덕선(李謫仙)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녀산(廬山)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16) 금강산 중에서 가장 장관을 이룬 최고봉(1638m)
 17) 모두 중국 산둥성에 있는 산
 18) 원통동. 표훈사에서 북쪽으로 뚫린 골짜기 이름
 19) 사자암. 화룡소 북쪽에 있는 봉우리
 20) 시든
 21) 만폭동의 가장 깊은 곳
 22) 마하연 동쪽 3리쯤에 있는 석벽으로 큰 미륵상을 새겨 놓았음
 23) 마하연과 유점사의 중간에 있는 고개 이름
 24) 두운치(斗雲峙) 너머에 있는 고개 이름
 25) 산수도경(山水圖經). 산수를 기록한 책

산둥(山中)을 미양 보라, 동해(東海)로 가자스라
 남여(藍輿) 완보(緩步)하야 산영누(山映樓)의 올라하니
 녕농벽계(玲瓏碧溪)와 수성데도(數聲啼鳥)는 니별(離別)을 원(怨)하느 듯
 정기(旌旗)를 썰티니 오식(五色)이 넘노느 듯
 고각(鼓角)을 섯부니 히운(海雲)이 다 것느 듯
 명사(鳴沙)길 니근 물이 취선(醉仙)을 빗기 시러
 바다흠 것티 두고 히당화(海棠花)로 드러가니
 백구(白鷗)야 녹디 마라, 네 버딘 줄 엇디 아느
 금난굴(金欄窟)²⁶⁾ 도라 드러 총석덩(叢石亭)²⁷⁾ 올라하니
 백옥누(白玉樓) 남은 기동 다만 네히 셔 잇고야
 공슈(工僮)의 성녕인가, 귀부(鬼斧)로 다드문가
 구투야 녹면(六面)은 무어슬 상(象)툃던고
 고성(高城)을란 더만 두고 삼일포(三日浦)²⁸⁾를 초자가니
 단셔(丹書)는 완연하되 스션(四仙)은 어디 가니
 예 사흘 머문 후의 어디 가 쏘 머물고
 선유담(仙遊潭)²⁹⁾ 영랑호(永郎湖)³⁰⁾ 거길나 가 잇는가
 청간덩(淸澗亭)³¹⁾ 만경디(萬景臺) 몇 고디 안똥던고
 니화(梨花)는 불셔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낙산(落山)³²⁾ 동반(東畔)으로 의상디(義相臺)예 올라 안자
 일출(日出)을 보리라 밤등만 니러하니
 상운(祥雲)이 집피느 동, 녹룡(六龍)이 바퇴느 동
 바다히 썩날 제느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텃등(天中)의 티뜨니 호발(毫髮)을 헤리로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26) 통천군 동쪽 12리에 있는 굴
 27) 통천군 북쪽 18리에 있는 돌기둥인데 관동 팔경의 하나
 28) 관동팔경 중의 하나로 고성군 북쪽 78리에 있음
 29) 간성군 남쪽 11리 쯤에 있는 물 이름
 30) 간성군 남쪽 55리에 있는 호수
 31) 간성군 남쪽 44리에 해변에 있는 정자로 관동팔경의 하나
 32) 양양 동쪽 15리에 있는 오봉산

시선(詩仙)³³은 어디 가고 히타(咳唾)만 나맛느니
 턴디간(天地間) 장(壯)흔 기별 쯔셔히도 흘셔이고
 샤양현산(斜陽峴山)의 톡툭(躑躅)을 므니볼와
 우개지륜(羽蓋芝輪)이 경포(鏡浦)³⁴로 느려가니
 십리(十里) 빙환(氷紈)을 다리고 고터 다려
 당송(長松) 올흔 소개 슬꺾장 퍼더시니
 물결도 자도 잘샤 모래를 헤리로다
 고쥬히람(孤舟解纜)하야 덩즈(亭子) 우히 올라가니
 강문교(江門橋)³⁵ 너믄 겨터 대양(大洋)이 거괴로다
 동용(從容)흔다 이 기상(氣象) 활원(濶遠)흔다 더 경계(境界)
 이도곤 꺾즌 디 쯔 어디 잇닷 말고
 홍장(紅粧) 고스(古事)³⁶를 현스타 헝리로다
 강능(江陵) 대도호(大都護) 풍속(風俗)이 도흘시고
 절효정문(節孝旌門)이 골골이 버러시니
 비옥가봉(比屋可封)이 이제도 잇다 홀다
 진주관(眞珠館)³⁷ 독셔류(竹西樓)³⁸ 오십천(五十川) 느린 물이
 태백산(太白山) 그림재를 동히(東海)로 다마 가니
 출하리 한강(漢江)의 목멱(木覓)³⁹의 다히고져
 왕덩(王程)이 유흔(有限)헝고 풍경(風景)이 못 슬미니
 유희(幽懷)도 하도 할샤, 직수(客愁)도 둘 디 업다
 선사(仙槎)를 찍워 내여 두우(斗牛)로 향(向)헝살가
 선인(仙人)을 츠즈려 단혈(丹穴)⁴⁰의 머므살가

33) 당나라 때의 시인 이태백
 34) 관동팔경의 하나 강릉 동북쪽 15리에 있음
 35) 경포 동쪽 어귀에 있는 널빤지 로 만든 다리
 36) 강릉 기생 홍장에 대한 옛 일. 고려 우왕 때 강원감사 박신이 홍장을 사랑하다가 만기가 되어 갈려 갈 제 부사 조
 운흥이 경포에 뱃놀이를 차려 홍장을 선녀로 꾸며서 박신을 현혹하게 했다는 일
 37) 삼척에 있는 객사
 38) 진주관 서쪽에 있는 누각. 관동팔경의 하나
 39) 서울 남산의 본명
 40) 고성군 남쪽에 있는 사선(四仙)이 놀았던 곳

턴근(天根)⁴¹⁾을 못내 보와, 망양당(望洋亭)⁴²⁾의 올은말이
 바다 맞근 하늘이니 하늘 맞근 므서신고
 곱득 노흔 고래, 뉘라셔 놀내판디
 불거니 썸거니 어즈러이 구는디고
 은산(銀山)을 것거 내여 늑합(六舍)의 느리는 듯
 오월당턴(五月長天)의 빅설(白雪)은 므스 일고
 쳐근덧 밤이 드러 풍낭(風浪)이 덩(定)허거늘
 부상지척(扶桑咫尺)의 명월(明月)을 기다리니
 셔광천당(瑞光千丈)⁴³⁾이 뵈는 듯 숨는고야
 쥬렴(珠簾)을 고타 것고, 옥계(玉階)를 다시 쓸며
 계명성(啓明星) 듯도록 곱초 안자 바라보니
 빅년화(白蓮花)⁴⁴⁾ 흔 가지를 뉘라셔 보내신고
 일이 도흔 세계(世界) 늑대되 다 뵈고져
 뉴하쥬(流霞酒)⁴⁵⁾ 곱득 부어 들드려 무론 말이
 영웅(英雄)은 어디가며, 스선(四仙)은 괴 뉘러니
 아미나 맛나 보아 넷 괴별 못자 허니
 선산(仙山) 동희(東海)에 갈 길히 머도 멀샤
 송근(松根)을 베여 누어 풋좁을 얼푯 드니
 꿈애 흔 사름이 날드려 날은 말이
 그디를 내 모르랴 상계(上界)에 진선(眞仙)이라
 황명경(黃庭經) 일즈(一字)를 엇디 그릇 날거 두고
 인간(人間)의 내려와셔 우리를 쥘오는다

41) 동천의 밑바닥

42) 평해 북쪽 40리에 있는 정자. 관동팔경의 하나

43) 달빛

44) 희 연꽃. 달의 다른 이름

45) 술의 탄 이름. 신선주

저근덧 가디 마오. 이 술 훈 잔 머거 보오
북두성(北斗星) 기우려 창히슈(滄海水) 부어 내여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화풍(和風)이 습습(꺠꺠)햏야 낭익(兩腋)을 추혀 드니
구만리(九萬里) 당공(長空)애 저기면⁴⁶⁾ 놀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스희(四海)에 고로 눈화
억만창싱(億萬蒼生)을 다 취(醉)케 밍근 후의
그제야 고타 맛나 쏘 훈 잔 햏꺠고야
말 디자 학(鶴)을 톡고 구공(九空)⁴⁷⁾의 올라가니
공둥(空中) 옥쇼(玉簫) 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나도 즘을 씨여 바다흠 구버보니
기픽를 모르거니 7인들 엇디 알리
명월(明月)⁴⁸⁾이 천산만낙(千山萬落)의 아니 비천 디 업다

-송강가사-

46) 자칫하면. 조금만 더하면
47) 구만리장공(九萬里長空)의 준말
48) 밝은 달. 여기서는 임금님의 은총을 가리킴

속미인곡續美人曲 정철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훈더이고.
 턴상(天上) 백옥경(白玉京)을 엇디햐야 니별(離別)하고,
 히 다 더 저른 날의 놀을 보라 가시논고?
 어와, 네여이고. 이내 스설 드러 보오.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괴얍즉 훈가마논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
 나도 님을 미더 군 뜨디 전혀 업서
 이리야 교티야 어즈러이 헛똥디.
 반기시논 늦비치 네와 엇디 다투신고.
 누어 싱각하고 니러 안자 헤여히니,
 내 몸의 지은 죄 뉘기 빠혀시니
 하늘히라 원망하며 사름이라 허물하라.
 설워 플터헤니 조물(造物)의 타시로다.
 글란 싱각 마오. 미친 일이 이셔이다.
 님을 뉘셔 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뉘기 얼굴이 편히실 적 몇 날일고.
 춘한고열(春寒苦熱)은 엇디햐야 디내시며,
 추일동턴(秋日冬天)은 뉘라셔 뉘섯논고.
 죽조반(粥早飯) 죠석(朝夕) 뉘 네와 곱티 세시논가.
 기나긴 밤의 잠은 엇디 자시논고.
 님다히 쇼식(消息)을 아므려나 아쟈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니일이나 사름 올가.
 내 무옴 둘 디 업다 어드러로 가쟈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놓픈 뉘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논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엿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 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꺾의 가 비길히나 보자 하니,
 북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샬공은 어디 가고 빈 비만 걸렸느니.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쇼식(消息)이 더욱 아득헌더이고.
 모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하야 불갓논고.
 오르며 누리며, 헤쓰며 바자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하야 풋즙을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하야 쏜의 님을 보니,
 옥(玉) 꺾튼 열구리 반(半)이나마 늘거제라.
 무음의 머근 말슴 슬꺾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 나니 말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하야 목이조차 메여 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즙은 엿디 씨뚫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디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이셔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최리라.
 각시님, 돌이야꺾니와 구즌 비나 되쇼셔.

누항사陋巷詞 박인로

어리고 迂闊(우활)홀산 이니 우히 더니 업다
 吉凶禍福(길흉화복)을 하늘기 부쳐 두고
 陋巷(누항) 깃뚫 곳의 草幕(초막)을 지어 두고
 風朝雨夕(풍조우석)에 석은 답히 섭히 되야
 서 흙 밥 닷 흙 粥(죽)에 煙氣(연기)도 하도 할샤
 설 데인 熟冷(숙냉)애 빈 비 식일 썬이로다
 生涯(생애) 이려 허다 丈夫(장부) 뜻을 옴길년가
 安貧一念(안빈일념)을 적을망정 품고 이셔
 隨宜(수익)로 살려 하니 날로 조차 齟齬(저어)허다
 可을히 不足(부족)거든 봄이라 有餘(유여)허며
 주머니 뷔엿거든 瓶(병)의라 담겨시라
 貧困(빈곤)헌 人生(인생)이 天地間(천지간)의 나썬이라
 飢寒(기한)이 切身(절신)허다 一丹心(일단심)을 이질논가
 奮義忘身(분의망신)허야 죽어야 말녀 너겨
 于橐于囊(우탁우낭)의 줌뽀이 모와 녀코
 兵戈五載(병과오재)에 敢死心(감사심)을 가져 이셔
 履尸涉血(이시섭혈)허야 몇 百戰(백전)을 지니연고
 一身(일신)이 餘暇(여가) 잇사 一家(일가)를 도라보랴
 一奴長鬚(일노장수)는 奴主分(노주분)을 이젧거든
 告余春及(고여춘급)을 어니 사이 칭각허리
 耕當問奴(경당문노)인들 놀드려 물롤논고
 躬耕稼穡(궁경가색)이 니 分(분)인 줄 알리로다

莘野耕耨(신야경수)와 上耕翁(농상경옹)을 賤(천)타 흐리 업것마는
 아므려 갈고전들 어니 쇼로 갈로손고
 旱既太甚(한기태심)햏야 時節(시절)이 다 느즌 제,
 西疇(서주) 늑흔 논애 잠싼 긴 널비에
 道上(도상) 無源水(무원수)를 반만싼 디혀 두고,
 쇼 흔적 듀마햏고 엄섬이 햏는 말삼,
 親切(친절)호라 너긴 집의 들 업슨 黃昏(황혼)의 허위허위 다라가셔,
 구디 다든 門(문) 밧긔 어득히 혼자 서셔,
 큰 기춤 아함이를 良久(양구)토록 햏온 後(후)에,
 어와 그 뉘신고 廉恥(염치) 업산 니옴노라.
 初更(초경)도 거윈디 그 엇지 와 겨신고.
 年年(연년)에 이러햏기 苟且(구차)햏 줄 알건마는
 쇼 업슨 窮家(궁가)애 햏염 만하 왓삽노라.
 공햏나나 갑시나 주엄즉도 햏다마는,
 다만 어제 밤의 거넨 집 저 사름이,
 목 불근 수기雉(치)를 玉脂泣(옥지읍)게 꾸어 니고,
 간 이근 三亥酒(삼해주)를 醉(취)토록 勸(권)햏거든,
 이러한 恩惠(은혜)를 어이 아니 갑흘넉고.
 來日(내일)로 주마 햏고 큰 言約(언약) 햏야거든,
 失約(실약)이 未便(미편)햏니 사설이 어려왜라.
 實爲(실위) 그리햏면 햏마 어이햏고.
 햏 먼덕 수기 스고 측 업슨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風彩(풍채) 저근 形容(형용)애 기즈칠 썩이로다.

蝸室(와실)에 드러간들 잠이 와사 누어시라.
 北窓(북창)을 비겨 안자 시비를 기다리니,
 無情(무정)흔 戴勝(대승)은 이니 恨(한)을 도우는다.
 終朝惆悵(종조추창)하며 먼 들흘 바라보니,
 즐기느 農歌(농가)도 興(흥) 업서 들리는다.
 世情(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다.
 아삭온 저 소뵈는 벗보님도 뉘홀세고,
 가시 영긴 묵은 밧도 容易(용이)케 갈련마는,
 虛堂半壁(허당반벽)에 슬디업시 걸려고야.
 春耕(춘경)도 거의거다 후리쳐 더더 두자.
 江湖(강호) 흔 꿈을 꾸언 지도 오리러니,
 口腹(구복)이 爲累(위루)하야 어지버 이저씨다.
 瞻彼淇澳(침피기옥)흔디 綠竹(녹죽)도 하도 할샤,
 有斐君子(유비군자)들아 낙디 ㅎ나 빌려스라.
 蘆花(노화) 깃픈 곳에 明月淸風(명월청풍) 벗이 되야,
 넘지 업슨 風月江山(풍월강산)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無心(무심)흔 白鷗(백구)야 오라 ㅎ며 말라 ㅎ라.
 다토리 업슬손 다문 인가 너기로다.
 無常(무상)흔 이 몸애 무슨 志趣(지취)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더 두고,
 이시면 粥(죽)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니 貧賤(빈천)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남의 富貴(부귀)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 오라.
人間(인간) 어니 일이 命(명) 밧긔 삼겨시리.
貧而無怨(빈이무원)을 어렵다 헉건마는
니 生涯(생애) 이러호디 설온 뜻은 업노왜라.
簞食瓢飲(단사표음)을 이도 足(족)히 너기로라.
平生(평생) 헉 뜻이 濫飽(온포) 애는 업노왜라.
太平天下(태평천하)애 忠孝(충효)를 일을 삼아
和兄弟(화형제) 信朋友(신봉우) 외다헉리 뉘 이시리.
그 밧긔 남은 일이야 삼긴 디로 살렸노라.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윤선도

압개예 안개 짓고 뿔뿔히 히 비천다

비 떠라 비 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날물이 미러 온다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강촌(江村)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춘사(春詞) 1>

날이 덥도다 물 우희 고깃 떠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굴며기 돌식 세식 오락가락 흥노고야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낫대는 쥐여 있다 락주(濁酒)스병(瓶) 시릿노냐 <춘사(春詞) 2>

동풍(東風)이 건든 부니 몹결이 고이 닐다

돌 드러라 돌 드러라

동호(東湖)를 도라보며 서호(西湖)로 가자스라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압뿔히 디나가고 뿔뿔히 나아온다 <춘사(春詞) 3>

우눈 거시 벉구기가 프른 거시 벉들습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닛 속의 나락들락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말가흔 기픈 소희 온갓 고기 뛰노는다 <춘사(春詞) 4>

고은 별티 째얀논디 물결이 기름 곳다

이어라 이어라

그믐을 주어 두랴 낙시톨 노흘 일가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탁영가(濯纓歌)의 흥(興)이 나니 고기도 니즐로다 <춘사(春詞) 5>

석양(夕陽)이 빗겨시니 그만하야 도라가자

돌 디여라 돌 디여라

안류(岸柳) 덩화(汀花)는 고비고비 새롭고야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삼공(三公)을 블리소냐 만스(萬事)를 싱각하라 <춘사(春詞) 6>

방초(芳草)를 불와보며 난지(蘭芷)도 뜨더 보자

비 세여라 비 세여라

일엽편주(一葉扁舟)에 시른 거시 므스것고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갈 제논 니뿐이오 올 제논 들이로다 <춘사(春詞) 7>

취(醉)하야 누얼다가 여흘 아래 느리려다

비 미여라 비 미여라

낙홍(落紅)이 흘러오니 도원(桃源)이 갓갑도다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인세(人世) 흥딘(紅塵)이 언메나 7렛느니 <춘사(春詞) 8>

낙시줄 거더노코 봉창(篷窓)의 들을 보자

달 디여라 달 디여라

흐믄 밤 들거나 조규(子規) 소리 몹게 논다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나쁜 흥(興)이 무궁(無窮)하니 갈 길흠 니젓땀다 <춘사(春詞) 9>

리일(來日)이 또 업스라 봄밤이 몇 덩 새리

비 브터라 비 브터라

낮대로 막대 삼고 식비(柴扉)를 초자 보자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어부(漁父) 생애(生涯)는 이렁구러 디넬로다 <춘사(春詞) 10>

구즌 비 머저가고 시넨물이 몹아온다

비 떠라 비 떠라

낮디를 두러메니 깃픈 흥(興)을 금(禁) 못홀되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연강(煙江) 텃장(疊嶂)은 누라셔 그려넨고 <하사(夏詞) 1>

년넙희 밥 싸 두고 반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청약립(靑蓀笠)은 써 잇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총(至菊兪) 지국총(至菊兪) 어스와(於思臥)

무심(無心)흔 빅구(白鷗)는 내 좃는가 제 좃는가 <하사(夏詞) 2>

마람닙희 바람 나니 봉창(篷窓)이 서늘코야

돈 드라라 돈 드라라

너롬 바람 덩홀소냐 가는 대로 비 시겨라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북포(北浦) 남강(南江)이 어디 아니 도흘리니 <하사(夏詞) 3>

몹결이 흐리거든 발을 씻다 엇더허리

이어라 이어라

오강(吳江)의 가자허니 천년노도(千年怒濤) 슬플로다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초강(楚江)의 가자 허니 어복통혼(漁腹忠魂) 난글세라 <하사(夏詞) 4>

만류녹음(萬柳綠陰) 어린 고디 일편티괴(一便苔磯) 괴특(奇特)허다

이어라 이어라

드리에 다 돌거든 어인징도(漁人爭度) 허물마라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학발로옹(鶴髮老翁) 만나거든 뢰택양거(雷澤讓居) 효측(效側)허자 <하사(夏詞) 5>

긴 날이 저므는 줄 흥(興)의 미쳐 모르도다

돋디여라 돋디여라

빛대를 두드리고 슈묘가(水調歌)를 불러 보자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애내성둥(欸乃聲中)에 만고심을 괴 뉘알고 <하사(夏詞) 6>

석양(夕陽)이 도타마는 황혼(黃昏)이 갓갑거다

비 세여라 비 세여라

바회 우희에 구분 길 솔 아리 빗겨있다

지국총(至菊叡) 지국총(至菊叡) 어스와(於思臥)

벽슈앵성(碧樹鶯聲)이 곧곧이 들이논다 <하사(夏詞) 7>

몰래 우희 그믐 널고 돔 미퓌 누어 쉬자

비 미여라 비 미여라

모괴를 뵈다 흐라 창승(蒼蠅)과 엇더하니

지국총(至菊叡) 지국총(至菊叡) 어스와(於思臥)

다만 흥 근심(勤心)은 상대부(桑大夫) 드르려다 <하사(夏詞) 8>

밤 스이 풍랑(風浪)을 미리 어이 짐작(斟酌)하리

달 디여라 달 디여라

야도횡쥬(夜渡橫舟)를 뉘라셔 날릿논고

지국총(至菊叡) 지국총(至菊叡) 어스와(於思臥)

간변(澗邊) 유초(幽草)도 진실로 어열브다 <하사(夏詞) 9>

와실(蝸室)을 브라보니 백운(白雲)이 둘러있다

비 붓터라 비 붓터라

부들 부치 그르 쥐고 석경(石徑)으로 올라가자

지국총(至菊叡) 지국총(至菊叡) 어스와(於思臥)

어옹(漁翁)이 한가(閑暇)터나 이거시 구실이라 <하사(夏詞) 10>

물외(物外)에 조흔 일이 어부(漁父) 생애(生涯) 아니러나

비 떠라 비 떠라

어옹(漁翁)을 온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스시(四時) 흥(興)이 흥가지나 추강(秋江)이 음듬이라 <추사(秋詞) 1>

슈국(水國)의 7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일다

달 드리라 달 드리라

만경당파(萬頃澄波)의 슬궤지 용여(容與)허자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사(秋詞) 2>

빅운(白雲)이 니러나고 나모 곳티 흐느긴다

돌 드라라 돌 드라라

밀물에 서호(西湖) | 요 혈물에 동호(東湖) 가자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빅빈(白蘋) 흥료(紅蓼)는 곳마다 경(景)이로다 <추사(秋詞) 3>

그러기 떳는 박기 못 보던 뉘 뵈는고야

이어라 이어라

낙시질도 흥려니와 취(取)흔 거시 이 흥이라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석양(夕陽)이 브이니 천산(千山)이 금슈(錦繡) | 로다 <추사(秋詞) 4>

은순(銀脣) 옥척(玉尺)이 몇치나 걸련느니

이어라 이어라

로화(蘆花)에 불 부러 곱히야 구어 노코

지국총(至叅蔥) 지국총(至叅蔥) 어스와(於思臥)

덜병을 거후리혀 박구기에 브어 다고 <추사(秋詞) 5>

넙 바람이 고이 부니 드론 돌기 도라와다

돌 디여라 돌 디여라

명식(暝色)은 나아오디 청흥(淸興)은 머리 일다

지국총(至叅蔥) 지국총(至叅蔥) 어스와(於思臥)

홍슈(紅樹) 청강(淸江)이 슬미디도 아니한다 <추사(秋詞) 6>

흰 이슬 빈견느디 불근 돌 도다 온다

비 세여라 비 세여라

봉황루(鳳凰樓) 묘연(渺然)하니 청광(淸光)을 놀을 즐고

지국총(至叅蔥) 지국총(至叅蔥) 어스와(於思臥)

옥토(玉兔)의 띠는 약(藥)을 호객(豪客)을 먹이고자 <추사(秋詞) 7>

건곤(乾坤)이 제곰인가 이거시 어드메오

비 미여라 비 미여라

서풍딘(西風塵) 물 미츠니 부체햐야 머엇헝리

지국총(至叅蔥) 지국총(至叅蔥) 어스와(於思臥)

드론 말이 업서시니 귀시서 머엇헝리 <추사(秋詞) 8>

웃 우희 서리 오디 치운 줄을 모를로다

달 디여라 달 디여라

도선(釣船)이 좁다 하나 부세(浮世)와 얻더 하니

지국총(至菊叡) 지국총(至菊叡) 어스와(於思馱)

니일(來日)도 이리 하고 모리도 이리 하자 <추사(秋詞) 9>

송간(松間) 석실(石室)의 가 효월(曉月)을 보자 하니

비 브터라 비 브터라

공산(空山) 락엽(落葉)의 길흠 엇디 아라볼고

지국총(至菊叡) 지국총(至菊叡) 어스와(於思馱)

빅운(白雲)이 좃차오니 녀라의(女蘿衣) 므겁고야 <추사(秋詞) 10>

구름이 거둔 後후의 흰빈치 두텁거다

비 떠라 비 떠라

턴디(天地) 폐식(閉塞)호디 바다흔 의구(依舊)하다

지국총(至菊叡) 지국총(至菊叡) 어스와(於思馱)

꺾업슨 물결이 김편 듯 하여있다 <동사(冬詞) 1>

주대도 다스리고 빗발을 박안느냐

달 드러라 달 드러라

쇼상(瀟湘) 동덩(洞庭)은 그물이 언다 한다

지국총(至菊叡) 지국총(至菊叡) 어스와(於思馱)

이때에 어도(漁釣)하기 이만한 디 업도다 <동사(冬詞) 2>

여튼 갠 고기들히 먼 소히 다 갠느니

돋 ㄷ라라, 돋 ㄷ라라

저근덜 날 도흔 제 바탕의 나가보자

지국총(至菊叻) 지국총(至菊叻) 어스와(於思臥)

밋기 곧 나오면 굴근 고기 문다 ㄴ다 <동사(冬詞) 3>

간밤의 눈 갠 후(後)의 경물(景物)이 달랠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논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논 천텃옥산(千疊玉山)

지국총(至菊叻) 지국총(至菊叻) 어스와(於思臥)

선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동사(冬詞) 4>

그물 낙시 니저 두고 빗전을 두드린다

이어라, 이어라

압개를 거나고자 몇 번(番) 이나 헤여 본고

지국총(至菊叻) 지국총(至菊叻) 어스와(於思臥)

무단(無端)흔 된브람이 힝혀 아니 부러울까 <동사(冬詞) 5>

자라가는 가마괴 몇 날치 디나거니

돋 디여라, 돋 디여라

압길히 어두우니 모설(暮雪)이 자자덜다

지국총(至菊叻) 지국총(至菊叻) 어스와(於思臥)

아압디(鵝鴨池)를 뉘터서 초목참(草木斬)을 싯돈던고 <동사(冬詞) 6>

단애(丹崖) 취벽(翠壁)이 화병(畵屏) 곧티 돌렸는디

비 세여라, 비 세여라

거구(巨口) 세린(細鱗)을 낚그나 몬 낚그나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고쥬(孤舟) 사립(蓑笠)에 흥(興)계워 안잣노라 <동사(冬詞) 7>

몹그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식식흔고

비 미여라 비 미여라

머흔 구름 혼(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그리온다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먼훤(塵暄)을 막는또다 <동사(冬詞) 8>

창쥬(滄州) 오도(吾道)를 네브티 날런더라

달 디여라, 달 디여라

칠리(七里) 여흘 양피(羊皮) 옷슨 그 엇더 하니런고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삼천(三千) 녹백(六白) 낙시질은 손 고븐 제 엇디턴고 <동사(冬詞) 9>

어와 저므려 간다 연식(宴息)이 말당토다

비 붓터라 비 붓터라

그눈 눈 빠린 길 불근 곳 훗터던 디 흥치며 거러가서

지국총(至菊叢) 지국총(至菊叢) 어스와(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의 념도록 송창(松窓)을 비겨 잇자 <동사(冬詞) 10>